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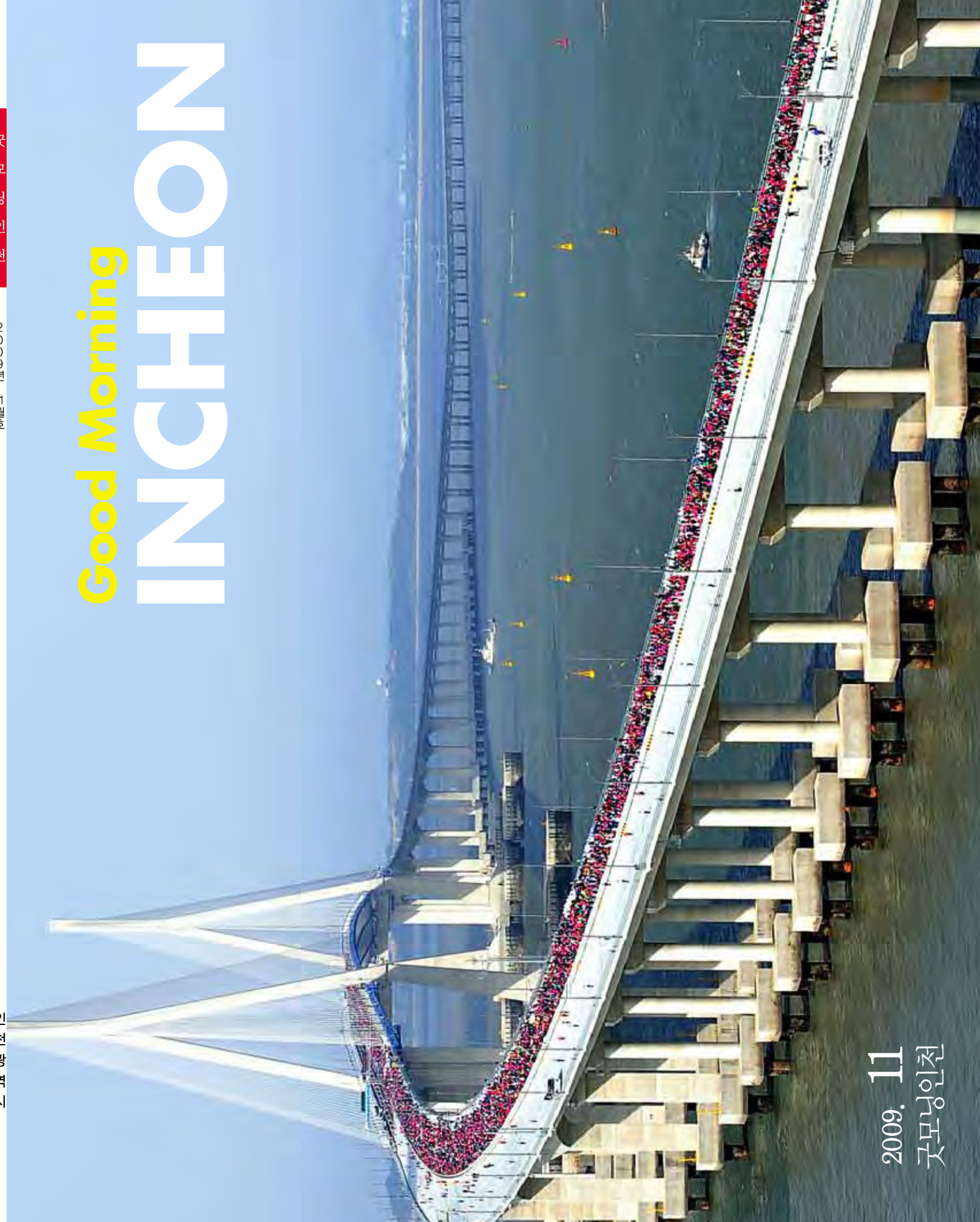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2009년 11월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09. 11
굿모닝인천



세계의 시선, 인천에 머물다

미국의 세계적인 뉴스 전문 채널 CNN이 특집생방송 'Eye on South Korea(한국에 주목한다)'를 통해 '꿈을 현실로 이루는 도시' 인천을 전 세계에 알렸다. CNN은 특히 '동북아의 맨해튼'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소개하면서 한국경제의 역동성에 주목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있는 우리시에 대한 관심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인천의 놀라운 이야기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인천의 미래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Contents

- 04 Open 인천대교 개통 이벤트
- 08 스토리가 있는 탐방로 강화나들길
- 14 도시축전 폐막 화보
- 18 세계 속 인천 송도국제도시
- 20 ① 詩 공간
- 22 인천에서 詩를 읊다 ② 인천이 담긴 시와 시인
- 24 ③ 詩 동인회
- 26 시정소식 '인천도시계획관 컴팩트스마트시티로 변경' 외
- 30 시의회소식 '영종 밀라노디자인시티전시관 방문' 외
- 33 지역국회의원소식 '인천대교는 대한민국의 미래' 외
- 34 모닝커피 한잔 도서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다
- 35 김치찰락 '누가 곱들이을까요?' 외
- 36 테마가 있는 세계 도시 필리핀 마닐라
- 40 Incheoner 인천사랑회 이혁재
- 42 생태통로 징매이 '에코브릿지'
- 45 Healthy Life 건강백세 혈액형에 관한 진실
- 46 인천 역사 책갈피 마라톤 문화 꽃핀 도시, 인천
- 48 이달의 문화 내비게이터 '미샤 마이스키 첼로 독주회' 외
- 52 독자글마당 '합격의 묘약, 수능 도시락' 외
- 54 Info Box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개관' 외

표지 | 인천대교(사진 조선일보사)

발행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9년 11월 1일 | 발행인 인천광역시청 | 편집인 공보관 김진택
 편집장 유동현 |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정경숙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 인쇄 통일정보인쇄(주)
 <굿모닝인천>은 <http://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032-440-8306)

평생 단 한번 ‘바다위 하늘길’ 났다

2009년 10월 16일은 대한민국 인천에 새 세상이 열린 날이다. 세계와 연결하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21.38km의 인천대교가 52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세상과 소통을 시작했다. 걷고, 달리고, 구르고... 대교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넉넉한 품에 안겨 너른 세상을 만끽했다.

글 ·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 조선일보사 제공





2009년 10월은 ‘인천대교의 달’로 기록해도 좋을 듯 싶다. 대한민국 토목기술의 쾌거로 건설된 최첨단 국내 최장의 다리 개통에 세계인들의 눈과 귀가 쏠렸기 때문이다. 국내 유수의 신문은 물론 세계의 언론도 모두 인천대교의 개통을 앓다투어 보도했고,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이 가을을 풍요롭게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6일 개통기념식에서 인천대교 개통을 인천시민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여겼고, 악조건을 이겨내고 사고없이 최단 시간내에 인천대교를 건설한 것은 아름다움과 기술을 갖춘 세계적인 건설 프로젝트로 기록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인천대교 개통으로 인천의 위상강화는 물론 하늘로 쪽 뻗은 주탑높이 만큼이나 인천이 비상이 점쳐진다.

바닷바람과 함께 달린 해상마라톤

개통기념 첫 이벤트는 지난 10월 11일 열린 국제마라톤대회. 3만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10월의 쌀쌀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상마라톤을 즐겼다. 80대 할아버지, 양팔없는 장애인, 아들과 함께 달리는 아버지, 부부마라토너, 직장동호인회, 외국인 마라토너 등 참가자들도 다양했다.

마라토너들은 하프코스의 반환점인 인천대교의 하이라이트 부분인 주탑밑을 돌때에는 주탑의 기하학적이면서도 환상적이고 웅장한 모습에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날 마라톤의 우승은 엘리트 남자부문은 케냐의 프란시스 킵 코에치 보웬 선수가 2시간 13분 57초의 기록을 세웠고, 여자부문도 케냐의 엘리자베스 제루이요트 첼웨노 선수가 2시간 31분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왔노라! 밟았노라! 걸었노라!

10월 17일 인천대교개통기념걷기대회. 새벽부터 강풍에 차가운 가을비가 내렸지만 다행히도 행사가 시작될 즈음엔 날씨가 맑아 흐린날씨에도 불구하고 5만2천명이 넘게 참가해 성

황을 이룬 이번 행사는 단풍처럼 알록달록한 옷들을 입은 행사참여자들로 인천대교가 가득했다. 한국기네스에 등재될 정도로 유료 참가자들이 많았던 이번 걷기대회는 차들이 다니기 전 허락된 인천대교를 걸어보고 싶은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날 성남에서 아이들과 함께 참가한 한 가정은 국내에서 가장 긴다리를 걷고 싶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체험학습계획서를 내고 왔으며 인천대교를 걷게 되는 설렘을 드러냈다.

서구 가정동에서 온 73세의 할머니는 걷기대회 풀코스 17km를 완주하기 위해 매일 문학경기장 트랙코스를 돌며 걷기대회를 준비했는데 이날 기상악화로 17km코스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대회엔 참가자들과 함께 ‘온 몸을 이용해 축구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인천대교 건너기’에 도전한 ‘축구공묘기의 달인’ 우희용 세계프리스타일축구연맹 회장도 기네스에 도전 축구공과 함께 송도를 출발한지 꼬박 4시간 46분36초만에 17km구간을 완주, 한국기록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7km 행렬의 은륜 퍼레이드

10월 18일 인천대교는 ‘두바퀴족’들이 차지했다. 자전거 5천대가 달리는 은륜(銀輪)의 대축제인 ‘자전거 퍼레이드’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서울과 인천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들은 ‘단 한번 인천대교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달려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자전거 동호인 5천명이 자전거를 타고 인천대교 왕복 35km 구간을 주파했다. 참가자들은 오전 8시 인천대교 동쪽 연수분기점을 출발, 영종도로 나가는 톨게이트 직전 반환점을 돌아 다시 인천대교를 타고 송도 센트럴파크까지의 코스를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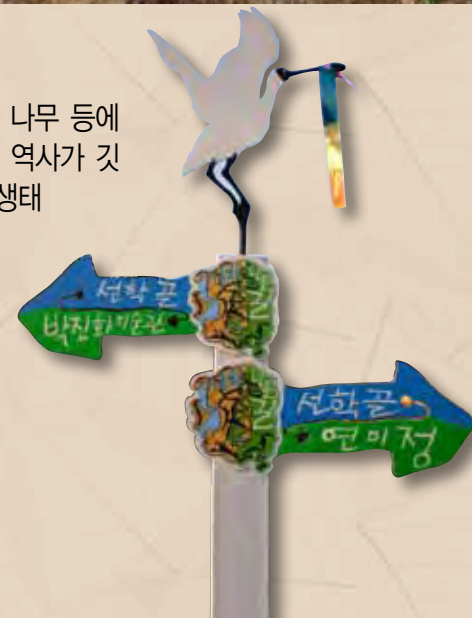
가지각색의 헬멧과 복장으로 단장한 5천여 명의 자전거 행렬은 7km나 이어지며 인천대교를 뒤덮은 장관을 연출했다.

발끝에 채이는 슬픈 역사



길에는 이야기가 있다. 길을 걸으며 만나는 마을이나 고개, 바다와 평야, 성벽과 나무 등은 저마다 품고 있는 사연이 있다. 하물며 발에 치이는 돌멩이 하나에도 한 갈피 역사가 깃든 강화도야 말해 뭣하랴. 강화나들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프로젝트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이 길은 스토리(story)라고 하긴 너무 가볍다. 수많은 스토리가 겹겹이 엮어진 장구한 히스토리(history) 탐사길이다. 물길, 바람길, 들길, 땀(몸과 마음)길을 찾아 강화 깊숙이 들어간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1906년 봄 강화도의 한 선비가 행장을 꾸려 말고삐를 잡고 길을 나섰다. 과거에 급제했으나 나라를 잃자 호국의 기개가 면면히 흐르는 자신의 고향 강화섬 일주에 나선 것이다. 자신이 태어난 불은면 두두미마을을 출발해 1년 여에 걸쳐 천리길(400km)을 걸어 100여 개 마을을 돌아보았다. 구석구석 가서 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256수의 철언절구 시집 <심도기행>으로 남겼다. 심도(沁島)는 강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 선비는 화남(華南) 고재형(1846~1916)이다. 예순의 선비가 답파한 이 길은 이후 '화남길'로 불리며 강화도 여정의 길잡이가 돼 왔다.

이 길이 걷기여행 봄을 타고 100여 년 만에 '강화나들길'로 되살아났다. 걸어야 느낄 수 있고, 되도록 천천히 걸어야 더 많은 것을 보고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강화도의 옛길을 걸으면 우리는 아득한 선사시대 원시인의 고고지성부터 오늘날 분단의 신음소리에 이르기까지 숭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애절한 '리틀 송도'

강화를 느끼고 싶은 마음이 동했다면 이제 책상 위의 역사책을 덮고 등산화 끈끈 묶고 배낭 하나 달랑 메고 화남 선생이 이끄는 강화나들길로 나서보자.

'심도로 드는 길' 첫 번째 코스는 역사문화의 길(용흥궁 ~ 강화역사관 · 13km)이다. 그 출발점은 용흥궁이다. '용흥궁(龍興宮)'은 글자 풀이를 하면 용이 일어난 뜻으로 강화도령 철중(조선 25대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이다. 원래는 초가집이었으나 1853년 세칸 기와집으로 다시 지어졌다. 마당에는 작은 우물과 툇마루 달린 작은 방 등 잊혀져 가는 시골집을 연상케 한다. 강화도령 원범(철종의 본명)이 코흘리던 시절에 동무들과 술래잡기, 제기차기를 했을 골목을 빠져나와 윗 골목으로 100여m 오르면 이 땅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건물이 나타난다. 이층 기와집에 십자기를 세운 성공회 강화성당이다.



1900년에 세워진 이 건물의 내부는 서양식 예배당 구조지만 겉모양은 한식 팔작기와 지붕을 하고 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퓨전 스타일이다. 백두산 원시림에서 벌채한 소나무를 목재로 사용했고 경복궁을 지은 도편수(우두머리 목수)가 직접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용흥궁 공원으로 다시 나와 고려궁지로 향한다. 언덕길을 오르면 막다른 곳에 넓은 주차장과 승평문(昇平門)이라는 대문이 보인다. 그 문을 밀고 들어가면 고려궁궐터다. 몽골의 말발굽을 피해 고려는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고 항쟁에 들어간다. 부랴 부랴 궁궐을 짓고 왕을 모신 그곳이 고려궁지다. 떠나온 송도(개성)를 잊지 못해 산 이름을 송악산이라 부르고 국자감, 태묘 등을 세우는 등 '리틀 송도'를 꾸몄다. 소박한 궁터를 돌아보면 이 궁터에서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살았을 고려왕조의 비운에 마음이 짝해진다. 개성으로 돌아간 후 궁궐과 성의 대부분이 무너지거나 불타 없어져 흔적도 거의 없어졌다. 오히려 그곳에서는 동헌과 이방청 건물 등 조선시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읍내 골목길 기행

궁궐 담장 밖 마을입구에는 680년 된 은행나무가 수호신처럼 서 있다. 높이 21m, 둘레 6m의 이 노거수는 고려 말부터 오늘날까지 강화의 힘겨운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았으리라. 은행나무를 지나면 읍내 골목기행이 구불구불 시작된다. 길 잃어버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갈림길마다 전신주나 나무에 핑크빛 화살표가 길을 안내하고 나들길 포인트마다 재밌는 그림이 새겨진 입간판과 그 위의 두루미가 부리로 다음 여정의 방향을 가리킨다. 여느 지역의 골목과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골목길 기행은 마을이 끝날 즈음 순례자에게 '보물'을 보여준다. 기와를 올린 한옥들이 골목에 줄지어 있는 모습이 서울 북촌에 미치지 못하지만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비슷하게 생긴 한옥이 20채 정도 있는 동네이다. 이집 저집 기웃거리는데 땅



씨 좋게 생긴 아저씨 한분이 손짓으로 들어오란다. 마루와 부엌, 그리고 다락방을 보여준다. 대들보와 서까래가 유년시절의 추억을 잠시 떠오르게 한다. 골목에서 별쪼기를 하던 할머니들은 이 골목에서 영화 촬영 많이 했다고 자랑하신다. 굳이 필름에 담지 않아도 그 골목의 풍경 자체가 한편의 영화다. 마을을 빠져 나와 강화향교로 향했다. 향교는 고려 인종 5년(1147) 내가면 고천리에 처음 터를 잡았고 이후 여러 번의 이삿짐을 싣 끝에 조선 영조 7년(1731) 지금의 자리에 정착했다. 향교 툇마루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 후 뒷쪽의 은수물로 향했다. 은수물은 예전에 읍내 사람들의 식수로 사용하던 우물이었는데 오래 전에 빨래터로 만들었다. 물론 지금은 그곳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은 없다.

시간의 주름 서려 있는 북문

강화읍 북산에 늦가을이 걸렸다. 산 허리춤을 끼고 오르면 진송루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강화산성 북문에 다다른다. 몽골의 말발굽을 피해 강화도로 건너온 고려왕 고종이 대몽항쟁을 위해 쌓은 강화산성의 북쪽 문이다. 아담한 성문 양 옆에 마치 수문장처럼 빨간 단풍나무가 서 있는 모습이 한 장의 그림엽서를 만들어 낸다. 성문 누각에 올라 북쪽을 바라본다. 바로 앞에는 남한의 평야가, 멀리는 북한 개풍군의 산이 눈에 들어온다. 고려 고종은 이곳에 서서 고향 땅 개성을 그리워했겠지.

성곽을 따라 오르다 북장대에서 길을 꺾어 오읍약수터로 내려간다. 이 약수터에는 애절한 이야기 하나가 전해 내려온다. 피난 온 고려인들은 서둘러 산성을 쌓았는데 날이 가물어 갈증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정성 들여 기우제를 올렸고 마침 벼락



하나가 성벽 근처로 떨어졌다. 그 곳의 바위가 깨졌고 맑은 물이 솟아나 있었다. 쫓겨 온 고려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는지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산이 울고 임금이 울고 더불어 백성이 울었다하여 '다섯 오'에 '울 읍'자를 써 오읍(五泣)약수라 불렀다. 이렇듯 이 근처에 오면 고려는 늘 슬프다. 약수터 밑의 성밖 마을은 늦가을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추수를 끝낸 황량한 들판, 까치밥 하나 달랑 매달려있는 감나무, 들깨를 털며 막바지 가을걷이를 하는 농부의 모습.... 한가한 농촌풍경을 그려내는 소재들이다.

나들길 끊는 이데올로기

마을을 벗어나 북쪽 해안길로 향한다. 그곳에는 얼마 전까지 일반인들의 출입이 봉쇄되었던 연미정이 있다. 연미정(燕尾亭)은 제비꼬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강물의 끝 지점과 바다의 시작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절묘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이 정자



에서의 달맞이는 강화팔경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절경이다. 하지만 연미정의 아름다움 이면에는 쓰라린 역사가 흐르고 있다.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때 조선이 후금과 형제의 관계를 맺으며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체결한 곳이다. 지금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민간인통제선 안에 거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정자에 서서 소리라도 지르면 북한 송악산에 부딪힌 메아리가 되돌아 올 정도의 거리다.

정자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하염없이 북녘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고려와 조선의 흔적들을 돌고 돌아서 결국 오늘의 현실과 마주하게 된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

연미정에서 나와 길게 이어진 철조망 길을 걷는다. 이중 삼중의 철조망은 대체 무엇을 막고 있는 것인가. 100년 전 화남 선생의 여정을 끊은 것은 물길 뿐이었을텐데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강화 나들길의 앞을 끊고 있다.



※강화 나들길은 먼저 강화시외버스터미널로 와서 용흥궁 공원으로 간다. 강화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용흥궁까지는 걸어서 15분 가량 걸린다.

인천 → 강화터미널(70번버스)
소요시간 : 2시간
배차간격 : 20분, 요금 : 3,500원

부평 → 강화터미널(90번버스)
소요시간 : 1시간30분
배차간격 : 15분, 요금 : 3,500원

인천 → 강화군청(700번버스)
소요시간 : 2시간
배차간격 : 40분, 요금 : 2,500원

강화산성에서 해안가 국방유적인 53개 돈대와 고려왕능 등을 잇는 총연장 55km(2구간 4코스)도보 여행길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프로젝트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1코스 역사문화길(용흥궁 공원 ~ 강화역사관 13km 4시간)

용흥궁 공원 → 용흥궁 → 강화읍 성공회 성당 → 고려궁지 → 은행나무 → 북관제묘 → 한옥마을 →강화향교 → 은수물 → 북문 → 북장대 → 오읍약수 → 황형장군묘 → 월곶리 갈림길 → 연미정 → 옥계방죽 → 강화역사관

2코스 호국 돈대길(강화역사관 ~ 온수리 시외버스터미널 15km 4시간)

역사관 → 용진진 → 광성보 → 손돌목 돈대, 용두돈대→ 포대 길 → 온수천 → 장흥빌라 → 온수리 시외버스터미널

3코스 능묘 가는 길(온수사거리 ~ 가릉 18Km 7시간)

온수사거리 → 전등사 → 삼랑성 → 길정저수지 → 이규보묘 → 곤릉 → 석릉 → 가릉

4코스 해가 지는 마을길(정능내리 석실분 ~ 외포리터미널 6.25km 2시간 30분)

정능내리 석실분 → 능내동길 → 하일동길 → 정제두묘 → 하우약수터 →이건창묘 → 건평나루 → 건평쉼터 → 건평돈대 → 정포동길 → 새우젓시장 → 망양돈대 → 외포리터미널

● 문의 : 강화군 관광개발사업소 930-4331, 강화시민연대 933-6223



‘미래 도시이야기’ 는 계속된다

지난 8월 7일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시작했던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이 어느덧 8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10월 25일 막을 내렸다. 도시축전 기간 우리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고, 우리시의 도시이미지는 저력과 비전을 가진 대한민국의 신성장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올렸다. 80일간의 미래도시 이야기를 마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지난 80일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

글 ·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미래도시의 비전을 담은 전시, 이벤트 풍성

도시축전은 80일간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겁게 구경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게 첨단존, 환경에너지존, 문화존, 도시·기업존 등으로 구성, 멀티미디어쇼, 주제영상관, 로봇사이언스미래관, 하이테크플라자, 녹색성장관, 테디베어관, 세계문화의거리, 세계도시·기업관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체험과 감동의 기회를 줬다. 또 지난 9월 1일부터 판매된 야간 할인권과 9월 21일부터 적용된 입장권 가격 할인을 확대 등으로 도시축전의 인기몰이에 가속도가 붙어, 인기있는 체험코너는 몇시간씩 줄을 서야 볼 수 있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세계 석학들과 도시담론 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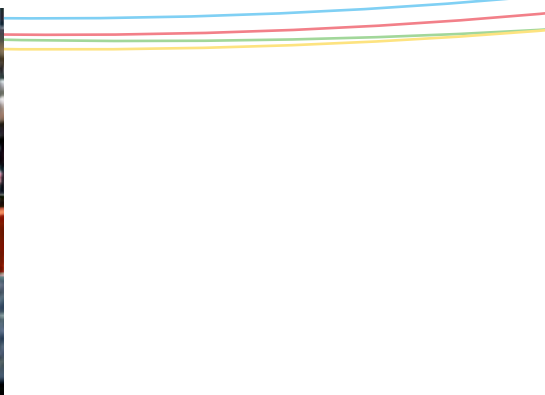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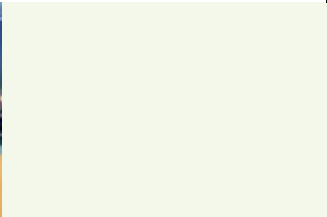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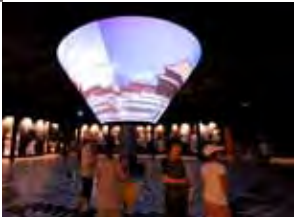
도시축전 기간 개최된 20여 건의 콘퍼런스를 통해 세계의 석학과 도시정책을 책임지는 시장이나 주지사 등의 발길이 인천으로 이어졌다.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세계환경포럼에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나서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으로 인류의 재앙과 대책을 논한 세계도시물포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문제를 논한 도시재생콘퍼런스, U-City콘퍼런스 등도 세계인의 관심사와 지구적인 문제를 논해 관심을 끌었다. 9월 15일부터 3일간 열린 아태도시정상회의(APCS)에서는 세계적인 석학 지크 아탈리와 도시창조이론의 최고 권위자 리차드 플로리다가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도시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천의 ‘글로벌 브랜딩’

도시축전 기간 세계의 눈과 귀는 인천과 송도국제도시에 쏠려 있었다. 실제로 미국의 ABC방송과 포브스지, 프랑스 르몽드지 등 해외 유수언론의 취재가 줄을 이었으며, 특히 10억명 이상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CNN방송이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생방송으로 인천특집을 방 송하면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래가치를 집중 부각했다. 특히 지난 16 일 개통한 국내 최장의 다리, 세계 사창고 순위 5위인 인천대교의 개통과 인천대교에서 벌어진 마라톤, 걷기대회, 자전거 대회 등을 통해 도시축전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았었다.



‘관람객 700만’ 육박 꼬리에 꼬리를 문 인파

도시축전은 개막초기 폭염과 잦은 비, 신종플루 확산 등의 악조건으로 관람객이 다소 주춤했으나 가을로 접어들 9월과 10월 중추 절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관람객이 폭발적으로 증가 지난 10월 18일에는 3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10월 10일에는 하루 동안 도시축전 주행사장에 26만천537명, 24일 32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최다 관람객 기록을 갱신했다. 25일 폐막일까지 주 행사장에 390만명이 다녀갔고, 부대행사장과 연계행사장을 포함해 도시축전을 찾은 국내외 방문객은 모두 7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람객 유치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세계 속의 인천’ 자긍심 고취

인천시민들은 도시축전을 통해 우리시의 달라진 위상을 체험하면서 인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인천시민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세계 5위의 사창고 인천대교와 4년 연속 서비스 세계 최우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이끌 국내 최초의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시민들은 대한민국 최고가 모인 인천에 자부심을 갖게 됐다.



‘우리도 할수 있다’ 대형국제행사 유치 자신감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인천에서 유래가 없던 대형 프로젝트, 국가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도시축전 80일간 연인원 30만명에 달하는 종사자가 근무했다. 특히 자원 봉사자만도 8만여 명이 활동했다. 세계적인 관심을 끈 글로벌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른 노하우는 앞으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해 굵직한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 제주도 등이 뛰어난 G20정상회의 유치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봉사와 함께한 도시축전

도시축전 자원봉사자 총 인원은 8만4천321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70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가 도시축전을 이끌었다. 지난 추석연휴 3일간 40만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다녀갔는데도 혼잡이 없었던 것은 명절도 반납하고 땀 흘린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도시축전을 통해 보여준 자원봉사자의 힘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인천에서 열릴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밑거름이 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CNN이 본 인천, 그 놀라운 이야기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인천의 놀라운 이야기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세계적인 뉴스 전문 채널 CNN은 지난 10월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국제도시로 비상하는 우리시를 소개했다. 인천의 미래가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심영보 시 공보관실

Eye on Incheon

세계가 꿈꾸는 미래도시 인천에 대한 관심이 바다 건너 세상으로 뻗어가고 있다. 이미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르 피가로 등 세계 유수언론이 앞 다투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인천의 꿈과 비전을 소개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세계적인 뉴스 전문 채널 CNN이 'Eye on South Korea(한국에 주목한다)'라는 타이틀로 꿈을 현실로 이루는 도시, 인천을 전 세계에 알렸다.

'Eye on South Korea'는 탁월한 기술력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나라를 소개하는 특집방송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한국을 집중 조명했다.

CNN은 특히 '동북아의 맨해튼'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소개하며 한국경제의 역동성에 주목했다. 그리고 한국인이 지닌 열정야마말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한국의 힘이라고 평가했다.

CNN이 이번 특집 방송에서 송도국제도시를 심층적으로 다룬 것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인천대교 등 인천의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경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한국경제를 이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있는 우리시에 대한 관심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인천에서 대한민국의 힘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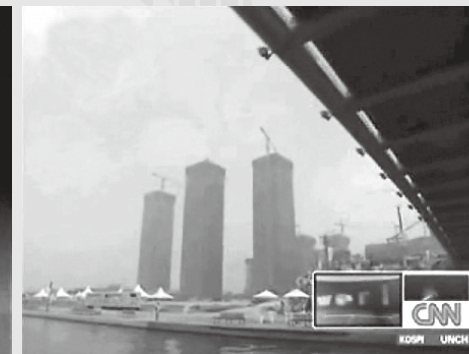
'Eye on South Korea' 인천편은 지난 10월 19일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송도센트럴파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상수 시장은 CNN 아시아 지역의 간판 여성 앵커 크리스티 루 스타우트(Kristie Lu Stout)와 인터뷰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인천의 발전상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CNN은 인천대교를 비롯해 송도 센트럴파크와 동북아트레이드타워 등을 소개하며, 한국에서 놀랄만한 건설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발전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렸다.

인천의 꿈과 희망을 담은 CNN 특집방송 'Eye on South Korea'의 하이라이트는 인터넷(cnn.com)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비상하는 우리시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세계 언론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해외 유수언론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인천의 힘을 보고 찬란히 빛나는 내일을 확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성에서 명동 먹자골목까지 한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다

한국을 조명한 CNN 특집 프로그램 'Eye on South Korea'에는 송도국제도시 외에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 IT, 디자인산업 등이 소개됐다.

먼저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식의 맛은 정성과 손맛에서 비롯된다. 한식에는 약과 음식의 근원이 같다는 약식동원(藥食同源) 사상이 배어있다"며 한식 예찬론을 폈다. 그리고 잡채와 빈대떡을 요리하고, 이 대통령이 평소 즐기는 고등어와 삼색전 등으로 상을 차리며 한식을 널리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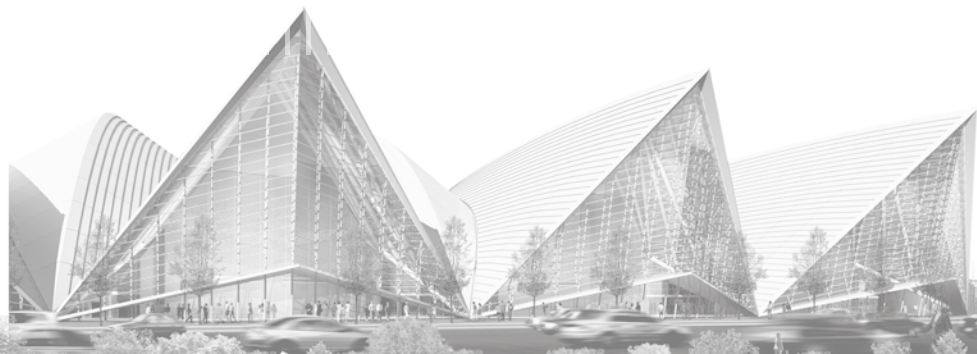
CNN은 또 '토크 아시아'를 통해 한류스타인 가수 비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를 소개하며,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대한민

국의 문화를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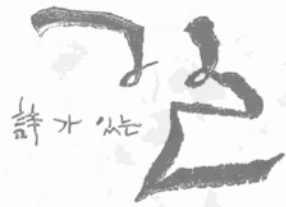
CNN은 또 패션 디자이너 하상백과 LG아이디어연구소를 인터뷰하며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패션·디자인 산업을 소개했다. 그리고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서울의 모습을 통해 한국 디자인의 현주소를 짚어보았다.

이와 함께 한국의 슈퍼카 '스피라(Spirra)'의 제작자와 만나고, 미국 시장을 점유한 한국차를 거론하며 한국의 발전된 자동차산업을 소개했다.

이밖에 미국과 일본에서도 인기를 크게 모으고 있는 전통주 막걸리와 명동의 먹자골목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 시청자들의 호평을 얻어 냈다.



詩香 흐르는 인천



가을이 깊어간다. 하늘은 맑고 땅빛은 수더분하다. 아침저녁 살갓을 스치는 공기가 제법 쌀쌀하다. 소슬한 바람이 들에 핀 풀과 꽃을 흔들고 지나가면, 잠들어 있던 詩心이 살포시 눈 뜬다. 누구나 시인이 되는 계절, 사랑과 낭만 그리고 시가 흐르는 공간으로 간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다락방에서 시인과 만나다

배다리는 사람냄새 흠뻑 배인 동네다. 지금은 스페이스 빔이라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옛 인천양조장, 오래된 의상실, 문구점 등 곳곳에 서민들의 삶이 끈적하게 녹아 있다. 특히 배다리는 50~60년대 헌책방 거리로 유명했다. 인천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냄새 종이냄새 짙게 배인 배다리에 얹힌 추억이 있을 것이다.

동인천역에서 도원역 쪽으로 10분쯤 걸어가면 배다리철교가 나온다. 철교를 지나자마자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서면 헌책방거리다. ‘아벨서점’은 벌써 17년 째 책방골목 한켠을 지키고 있는 배다리 터줏대감이다. 서점에는 세월의 곱절이 자욱이 쌓인 책 5만여 권이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아벨서점에서 200여 미터를 걸어가면 ‘배다리, 시가 있는, 작은 책길’이 나온다. 일명 ‘시(侍) 다락방’이라 불리는 이곳은, 아벨서점 박현숙 대표가 50년대 건물을 손수 고쳐서 만든 소중한 공간이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가 사람의 음성으로 울려퍼지고 세상에 아름답게 젖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방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시 다락방은 지난 2007년 가을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해 11월 ‘시 읽는 잔치’를 열어 사람들 마음속으로 시가 걸어가도록 했다. 20평 남짓한 아담한 공간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시 향기가 가득 피어오른다. 김윤식, 김학균, 랑승만, 강태열, 이가림, 이경림 등 수많은 문인

들이 이 작은 방에서 시를 읊고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었다. 11월에는 시 다락방의 세 번째 생일을 맞아 조우성 선생의 시 낭송회가 열릴 계획이다.

따스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계절, 푹푹... 시 다락방의 문을 두드리자, 그 곳에는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스며든 시와, 그 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가는 길 : 동인천역에서 도원역 쪽으로 10여 분쯤 걸으면 배다리철교가 나온다. 철교를 지나자마자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서면 헌책방 거리. 왼쪽에 아벨서점이 보이고, 200여 미터 골목을 오르면 시 다락방이다.

문의 : 아벨서점 764-8160



시를 눈에 담고, 마음에 담다

겨울로 가는 길목, 삶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의 숨결이 가득한 공간을 다녀왔다. 바로 인천문인들의 시화를 전시하고 있는 수봉도서관이다. 평범한 종이 한 장에 써져도 좋을 글이 아름다운 그림 위에 그려지니 그 향취가 더 하다.

수봉도서관은 개관기념 전시전 ‘Old but New’에 이어 ‘가을, 詩와 산책하다 - 인천 현역 시인 15인 작품전’을 열고 있다. 전시회에 가면 김윤식, 김영승, 김종식 등 인천출신 혹은 인천연고 시인 15명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때로는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감동으로 때로는 미소 짓게 하는 해학으로, 문인들의 작품이 가슴 한켠에 잔잔한 파도를 일으킨다.

수봉도서관은 이와 함께 지난 10월 17일 포이트리(Poetry) 콘서트 ‘詩, 황홀한 고백’을 열었다. ‘사랑을 속삭일 때, 열정을 말할 때, 아름다움에 감사할 때 시를 통해 황홀하게 고백하자’를 주제로 열린 콘서트에는 김윤식 시인과 인천 기타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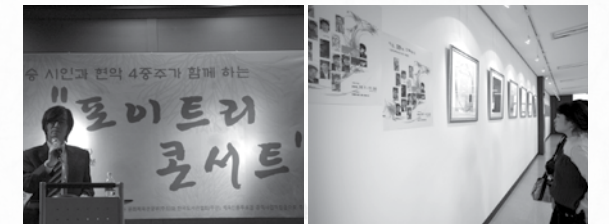
케스트라가 함께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깊이 있는 가을을 선사했다. 한국도서관협회의 지원으로 열린 포이트리 콘서트는 수봉도서관 외에도 미추홀도서관에서 지난 10월 24일 열렸다. 도서관 옥상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영승 시인의 시낭송과 현악 4중주가 어우러져 겨울로 가는 길목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가는 길 : 지하철 1호선 도화역 2번 출구에서 10분 정도 도보

전시기간 : 10월 1일~11월 30일(월요일은 휴관)

장 소 : 수봉도서관 3층 문화누리

문의 : 수봉도서관 870-9135



시와 함께 걷는 길, 가을은 깊디깊어

걷기는 소소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안겨준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으면 잊고 있던 나와 세상에 대한 존재감이 느껴진다. 차 안에서 무심히 지나치던 풍경들도 소중히 다가온다. 올 가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심 속 길을 거닐자. 시가 함께라면 더욱 좋다.

부평구 산곡4동 경남아파트 1, 2차 사이의 메타세쿼이아길은 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걷고 싶은 시화의 거리’다. 현대적 풍경 속에 시가 흐르는 풍경이 오롯하다.

이 길은 아파트 숲에 쌓인 동네에 숨통을 틔여주고자, 지난 9월 산곡4동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주민 그리고 문인들이 힘을 모아 가꾸었다. 200여 미터에 이르는 길에 시와 가곡, 동시 등이 담긴 시화 52개가 걸려있어 바빠 걷던 발걸음에 잔잔한 심표를 찍어준다. 특히 이곳에는 3개의 학교가 모여 있어, 오가는 아이들이 시를 보며 착하고 예쁜 마음을 키우고 있다. 산곡4동 주민자치센터는 시화의 거리를 인근의 벽화거리와 연계해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있다.

겨울로 가는 길목,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시가 흐르는 초록빛 메타세쿼이아 길을 거닐자. 행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문의 : 산곡4동 주민자치센터 509-8395

부끄럼 많은 보석장사 아가씨

인천을 노래한 시인은 의외로 많다. 1920년대부터 이미 신문물의 창구였던 인천항의 이국적인 풍경을 노래하거나, 항구의 애환을 여러 시인들이 자주 읊었다. 김기림은 인천을 ‘부끄럼 많은 보석장사 아가씨’라고 했다. 인천이 시의 대상이 될 만했었던 것이다. 어떤 시들이 있었을까.

글 · 김윤식 시인 · 인천문협 회장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인천을 노래한 시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법도 하다. 왜냐하면 인천은 바다와 부두가 주는 낭만, 감성 같은 것보다는 늘 복잡하고, 들떠 있고, 시끄럽기만 한 도시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을 노래한 시인은 의외로 많다. 1920년대부터 이미 신문물의 창구였던 인천항의 이국 풍경을 노래하거나, 항구의 애환을 여러 시인들이 자주 읊었다. 김기림은 인천을 ‘부끄럼 많은 보석장사 아가씨’라고 했다. 인천은 시의 대상이 될 만했었던 것이다. 어떤 시들이 있었을까.

먼저 김소월(金素月, 1902~1934)이 쓴 인천을 보자. 1922년 「밤」이라는 시에서 소월은 ‘홀로 잠들기 외로운 제물포의 밤’을 그리고 있다. 그는 한때 제물포에 와서 머물렀던 적이 있다고 한다. 「밤」은 그의 대표작 「진달래꽃」과 같은 해, 같은 잡지에 발표되었다. 홀로 잠들기가 참말 외로워요 / 밤에는 사무치도록 그리워와요 / 이리도 무던히 / 아주 얼굴조차 잊힐 듯해요 / 벌써 해가 지고 어둡는데요 / 이곳은 인천의 제물포, 이름난 곳, / 부슬부슬 오는 비에 밤이 더디고 / 바닷바람이 춤기만 합니다

// 다만 고요히 누워들으면 / 다만 고요히 누워 들으면/하이얏게 밀어드는 봄 밀물이 / 눈앞을 가로막고 흐느낄 뿐이어요. (1922년 『개벽』)

우리에게는 그리 썩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920년대 『백조』, 『개벽』 같은 잡지에 작품을 발표하곤 했던 시인 오천원(吳天園, 생몰년 미상)의 「저 물을 건너면」에는 월미도가 나온다. 아아, 출렁거리는 물 위에 물 위에, / 저 멀리 저무는 저녁 불은 불는다. / 물여울 어부의 배에서 가늘게 오르는 저녁연기, / 월미도 숲속에 엮은 회색 저녁은 떠돈다. // 아아, 저 물을 볼



때마다 볼 때마다, / 애타는 이 가슴, / 저 물을 활활 남으로 건너면 / 거기는 인문(人文)과 풍토 다른 미견(未見)의 땅.<후략> (1923년 『개벽』)

193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 정지용(鄭芝溶, 1902~1950)도 「슬픈 인상화(印象畵)」라는 시를 썼다. 인천세관에 걸린 깃발의 나부끼는 모습에서 이국정조를 느끼게 하는 이 시는 애시리라는 여인과의 이별 ‘슬픈 인상화’로 표현했다. 수박냄새 품어오는 / 첫여름 저녁때... // 먼 해안 쪽/길옆 나무에 늘어선 / 전등, 전등, / 해엄처 나온 듯이 깜박거리고 빛나노나. // 침울하게 울려오는/축항의 기적소리... 기적소리... / 이국정조로 퍼덕이는 / 세관의 깃발, 깃발. // 시멘트 깎인 인도 측으로 사뭇사뭇 옮기는 / 하이얀 양장의 점경! / 그는 흘러가는 실심(失心)한 풍경이려니... / 부질없이 오랜지 껌질 씹는 시름... / 아아, 애시리(愛施利) 황(黃)! / 그대는 상해로 가는 구료. (1926년 『학조』)

월북 시인 박팔양(朴八陽, 1905.~?)도 「인천항」이라는 시를 남겼다. 그는 주로 전원을 칭송하는 자연시와 사회적 현실에 대한 관심을 노래한 경향시 등을 발표하였다. 1927년 인천에서 창간된 동인지 『습작시대』 창간호에 이 작품을 실었다. 조선의 서편 항구 제물포 부두 / 세관의 기는 바닷바람에 퍼덕거린다. / 잿빛 하늘, 푸른 물결, 조수 내음새 / 오오, 잊을 수 없는 이 항구의 정경이여. // 상해로 가는 배가 떠난다. / 저음의 기적, 그 여운을 길게 남기고 / 유랑과 낭만과 망명의/ 많은 목숨을 싣고 떠나는 배다. / 어제는 Hongkong, 오늘은 Chemulpo, 또 내일은 Yokohama로, / 세계를 유랑하는 코스모포리탄 / 모자 뺄딱하게 쓰고, 이 부두에 발을 내릴 제. //

축항 카페에로부터는 / 술 취한 불탄서 수병의 노래 / “오! 말세이유! 말세이유!” / 멀리 두고 와 잊을 수 없는 고향의 노래를 부른다.<후략>(1927년 『습작시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였던 김기림(金起林, 1908~?)은 1933년 구인회에 가담, 주지주의에 근거한 모더니즘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였다. 광복 후 조선문학가 동맹에 가담하여 정치주의적 시를 주장하였다. 6·25전쟁 때 납북되었다. 연작시 「길에서-제물포 풍경」을 남겼다. 그 일부를 인용한다. 「기차」
모다불 붉음을 / 죽음보다도 더 사랑하는 금벌레처럼 / 기차는 / 노을이 타는 서쪽 하늘 밑으로 빨려갑니다
「인천역」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 성냥개비나 / 사공의 ‘포켓’에 있는 까닭에 / 바다의 비린내를 다물었습니다.

「조수」
오후 두 시... / 머언 바다의 잔디밭에서 / 바람은 갑자기 잠을 깨어서는 / 휘파람을 불며 / 검은 조수 떼를 모아가지고 / 항구로 돌아옵니다.
「밤 항구」
부끄럼 많은 보석장사 아가씨 / 어둠속에 숨어서야 / 루비 사파이어 에머랄드 / 그의 보석 바구니를 살그머니 뒤집는다. (1936년 『조광』)

이밖에도 박인환(朴寅煥), 배인철(裴仁哲), 김광균(金光均), 오장환(吳章煥) 등을 위시해 근래로 내려오면서 더 많은 시인들이 인천을 시로 쓰고 노래했다. ‘부끄럼 많은 보석장사 아가씨’ 인천은 그 도시 특성상 언제나 시의 대상이 되곤 했던 것이다. 그 시들은 또 다른 기회에 만날 것을 기약한다.

詩心에 겨워 詩를 쓰는 사람들



공자는 시 쓰는 마음을 사무사(思無邪)라고 했다. 시는 거짓 없고 악하지 않은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뜻이다. 깊어가는 가을, 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한 다발 시를 아름답게 피워내는 사람들을 만났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갯벌문학

바다처럼 맑고, 갯벌처럼 깊어라

‘갯벌문학회’는 수많은 바다생명을 품고 있는 갯벌처럼 살아 숨쉬는 문학단체다. 갯벌문학회는 1985년 ‘글소리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며, 1991년〈갯벌문학〉을 창간해 현재 20호까지 발간했다.

갯벌문학회는 우리시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졌다. 지금도 회원 8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이 등단한 현직 공무원이다. 10여 년 전부터는 회원의 범위를 인천경기에서 전국으로 넓혀 세상 곳곳에 문학의 향기를 뿌리고 있다.

갯벌문학회 서부길 회장은 ‘육필문학이 그리운 시대, 다시 펜을 잡아 시적인 구상을 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길 바란다’고 말한다.

문의 : 갯벌문학회 011-328-1845

부평문학

아름답게 피어오른 문학의 꽃

‘부평문학회’는 1996년 문학의 불모지에 지역색이 서린 문학을 꽃피우고자 출발했다. 회원들은 30여 명에 이르며 모두 부평구와 계양구에 거주하는 문인들이다.

이들은 지역의 정서와 희로애락을 버무려 시, 소설, 아동문학, 수필 등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고 있다. 그리고 동인지〈부평문학〉을 발간해 주민들이 문학에 쉽게 다가서도록 돕고 있다. 문학회는 또 시낭송과 불우이웃돕기 시화전 등을 통해 사랑의 향기를 세상에 뿌리고 있다.

지난 9월 부평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시의 숨결-시가 내게로 왔다’는 시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시낭송회로 보는 이의 눈과 귀, 가슴을 감동으로 마비시켰다.

문의 : 부평문학회 010-4313-8078

인산문학

산의 기운 품고, 상상의 나래를 펴다

‘인산문학회’는 1995년 산의 기운을 받아 맑고 건강한 글을 쓰고자 출발했다. 회원들은 한달에 한 번 산에 올라 시를 읊으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맑은 정신을 소통한다. 30여 명의 회원들은 대부분 인천문인협회 소속 문인들이며 일부 등단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도 산을 좋아하고 문학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 올해 인천시문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인산문학회 김기영 회장은 ‘시는 떠오르는 이미지와 이미지가 결합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상상의 작품이다. 산에서 지친 일상을 지우고 상상의 나래를 펴기 바란다’고 말한다.

문의 : 인산문학회 010-7654-7193

굴포문학

문학소녀들의 행복한 글쓰기

‘굴포문학회’는 1994년 여성문화회관 문예창작반 수강생들이 모여 만들었다. 주로 전업주부였던 회원들은 글쓰기를 통해 삶의 행복을 찾았고 지금은 거의 등단했다. 동인지〈굴포문학〉은 어느덧 16집 발간을 앞두고 있다. 40여 명의 회원들은 시, 수필, 소설, 아동문학 등 다양한

詩 교육기관

가을, 누구나 시인이 된다

가을이면 가슴에 무엇이 이리도 넘치는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詩心을 아름다운 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언어를 다루고 문장을 빚어내는 법을 깨우쳐 주는 곳을 소개한다.

인천문인협회의 문학창작교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와 수필 두 가지 강좌로 진행하며, 인천문인협회 김윤식 회장이 넘치는 시상을 유려한 글로 풀어낼 수 있도록 가르친다(863-1798). 연수문화원의 문예창작특강은 2001년 개설해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지도강사인 김영송 시인은 시를 쓰려면 강력한 필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산문과 시를 넘나들

며 진지하게 글쓰기를 가르친다(821-6229, 6239). 새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새얼문예창작교실은 1999년 시작해 김윤식, 이원규, 장석남 등 내로라하는 작가들이 강의를 맡아 왔다. 시 창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회원들이 창작한 작품을 중심으로 강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885-3611).

장르의 글을 쓰는데, 그 가운데 15여 명이 시를 쓰는 자체 모임을 갖는다.

수업은 글을 창작하고 지도교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식으로 한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회원들은 이와 함께 문학기행을 통해 문학의 향기가 서린 곳을 찾고, 유명문인들을 초청해 강의를 들으며 시심을 키우고 있다.

문의 : 굴포문학회 010-2649-3734

내향문학

긴 세월, 詩처럼 살다

‘내향문학회’의 역사는 길다. 내향문학회는 1973년 ‘경기시문학’으로 세상에 첫발을 내딛고 그 다음해에 동인지〈시류〉를 발간한다. 그리고 80년에 ‘내향문학회’로 뿌리내렸다. 30여 년의 세월이 말하듯 김영승, 조우성, 서동익 등 수많은 인천의 중견문인들이 내향문학회를 거쳐 갔다.

문학회는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시를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시와 행위예술이 어우러진 시 낭송회를 열고, 손바닥시집을 발간하고 있다.

문의 : 내향문학회 011-786-0478



인천도시계획관 ‘컴팩 · 스마트시티’로 변경

우리시는 송도국제도시에 지난 8월 개관한 ‘인천도시계획관’의 이름을 ‘컴팩 · 스마트 시티(Compact, Smart City)’로 변경했다.

컴팩 · 스마트시티는 총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7천7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축 면적 8천400㎡ 규모로 건립됐다.

이곳은 입체영상관, 고대 · 근대 · 현대도시전시관, 인천모형관, 체험전시관, 인천경제 자유구역 홍보관, 영상실 등을 갖추고 있다.

문의 | 시 도시계획과 ☎ 440-4612

민원업무 24시간 상담 ‘민원콜센터’ 운영

우리시는 2011년 4월까지 각종 민원업무를 24시간 상담, 처리하는 ‘민원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가 현 청사 앞에 신축할 예정인 통합데이터센터에 들어서게 되는 콜센터는 총 34억6천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산장비와 50명의 상담원을 갖춘 예정이다.

콜센터에서는 간단한 민원이나 상담은 바로 처리해 주고, 전문적이거나 복잡한 내용은 담당 부서에 연결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돕는다. 상담분야는 여권, 차량, 교통, 상하수도, 청소 등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이며, 긴급구호를 위한 다양한 위기전화 시스템도 연결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다른 시도의 경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가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 시 시민봉사과 ☎ 440-2582



송도에 지능형전력망 구축

우리시와 경원대학교가 전자통신분야 세계최고 연구소인 미국 벨 연구소와 공동으로 송도국제도시에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경원대 가천벨에너지 연구원과 벨 연구소는 앞으로 10년간 각각 1천 500만달러 총 3천만달러를 투입해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 응용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작업을 하기로 했다.

안상수 시장과 이길재 경원대 총장, 드서비스 미트리 벨연구소 부사장은 지난 10월 14일 웨라튼인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송도국제도시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경원대 가천벨에너지연구원과 벨연구소는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 관련 핵심 통신 인프라, 통합보안 시스템, 혁신적인 응용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별도 체결했다.

가천에너지연구원과 벨 연구소의 공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시와 가천벨에너지연구원, 벨연구소가 송도국제도시를 한국을 대표하는 ‘녹색성장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문의 | 시 에너지정책과 ☎ 440-4352



디지털엔터테인먼트센터 2011년 말 건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 엔터테인먼트 분야 기업들이 입주하는 ‘디지털엔터테인먼트센터’를 2011년 말에 건립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부지 1만 2천500㎡에 1천 200억원을 들여 조성할 이 센터는 영화와 음악, 게임 등의 분야 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

일본 프리아구단을 운영하는 일본의 오릭스사는 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국내 4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데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협약을 맺고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오릭스사는 사업콘텐츠 개발과 해외사업 부문을 맡을 예정이며,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홍보관의 기획 및 운영, 전시와 디자인 콘텐츠 등을 개발하게 된다.

오릭스 그룹은 지난해 7월 열린 지역투자 박람회에서 인천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지난 6월 외환은행에 2천 5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를 마치는 등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투자를 진행해 왔다.

문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453-7073



인천, 서울, 경기 손잡고 ‘수도권 광역경제위원회’출범

우리시가 경기도, 서울시와 손잡고 3개 도시를 광역경제권으로 재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도권 광역경제위원회’가 지난 10월 5일 출범했다.

안상수 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동위원장으로 나선 가운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는 3개 도시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수도권광역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심의, 의결됐다.

이날 위원회는 5개년 계획의 4대 전략 목표를 ▷지식기반산업 육성 ▷광역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기지 구축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으로 세웠다.

우리시의 경우 인천의 물류유통, 서울의 IT기술 · 연구인력 등 각 지역의 장점을 교환할 수 있는 ‘수도권 지능형 메카트로닉스산업협회’를 설립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인천 간석오거리 ~ 부천 ~ 서울 오류동을 잇는 13.6km구간에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마련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문의 | 시 정책심의관실 ☎ 440-2134

강화 남북연결 해안도로 준공

9년간의 대역사 끝에 강화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해안도로가 준공됐다.

인천시 강화군은 지난 9월 30일 외포리 해안도로옆 주차장에서 안상수 시장, 안덕수 군수, 유천호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 해안순환도로 3공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 한 해안순환도로는 지난 2001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9년 여의 대장정 끝에 숲한 우여곡절을 거쳐 준공을 하게됐다. 화도면 내리 선수포구에서 내가면 외포리까지 총연장 8.9km길이이며 옆에는 폭 3m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함께 건설됐다. 이번 해안도로 준공으로 강화 서부해안의 대표적인 항구인 외포항과 선수항이 곧바로 연결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상형태로 건설된 도로의 곳곳에는 쉼터와 굴암돈대 등 문화재가 산재해 국방유적을 보여 줄길 수 있는 관광도로의 기능도 함께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시 향만공항시설과 ☎ 440-4812



동북아 트레이드타워 전망대 송도 명소로 자리잡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 내에 건설중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전망대가 송도의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최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C)에 따르면 작년년부터 싱가포르와 일본, 홍콩 등 아시아 각국의 투자자 및 금융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국내외 인사 60여 개 팀이 NEATT 전망대를 방문, 송도국제도시 개발현장을 둘러봤다.

65층 규모높이(높이 305m)중 55층에 설치된 NEATT전망대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역사를 보여주는 보드판과 개발 마스터플랜을 볼수 있는 동영상 화면 등이 준비돼 있다. 또 6대의 망원경을 통해 서해바다와 인천대교를 구경할 수 있으며, 관람객들이 쉴수 있는 의자도 갖추고 있다. 특히 1분당 300m의 속도로 1층부터 55층까지 55초만에 올라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는 방문객을 감탄케하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에서 업무시설로는 가장 먼저 들어설 NEATT는 현재 69.5%의 공정률을 보이며 내년 완공 예정이다.

문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453-7073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탈바꿈

도심을 가로질러 하수가 흘렀던 용현갯골수로가 바닷물이 넘나드는 친수공간으로 조성, 지난 10월 6일 준공식을 가졌다. 용현갯골수로는 그동안 도심 한가운데로 하수가 흐르다 보니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분수를 바라보며 산책하고 남녀노소가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이 됐다.

주민들은 악취발생 차단을 위해 복개를 요구했으나, 시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지 않는 복개는 옳지 않다는 판단아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이해를 구하고 갯골수로로 친수공간으로 조성키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2007년부터 3년간 사업을 진행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친수공간으로 결실을 맺었다.

문의 | 시 물관리과 ☎ 440-3621~4



다동이 가정수도세 깎아드려요

우리시는 내년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 이상 있는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시는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있는 시내 3만 여가구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총 16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해당 가구의 매월 상수도 사용량 가운데 10%(4천500원)까지 요금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시는 연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과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지역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 2000년 1.46명에서 2005년 1.07명으로 급감한 뒤 2006년 1.11명, 2007년 1.26명, 지난해 1.19명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954



국내최초 자전거 전문연구센터 문 열어

국내 최초 자전거 전문연구센터가 인천에 문을 연다. 우리시에 따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시기술지원본부가 지난 10월 19일 연수구 송도동 한국자전거 종합연구센터에서 헌판식을 갖고 국내 자전거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시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헌판식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안상수 시장, 자전거 관련업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들이 자체 개발한 자전거 시승식과 실험실을 견학했다. 한국자전거종합연구센터는 앞으로 국내 자전거 산업육성을 위한 공동연구와 미래 혁신형 신개념 자전거 디자인 표준모델을 보급, 자전거 핵심부품과 완성조립 제작 지원 및 연구활동을 벌인다.

문의 | 시 기술지원과 ☎ 440-4322



안상수 시장 스카우트연맹 무궁화 금장 수상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강영중)은 지난 10월 19일 안상수 시장에게 '한국스카우트연맹 무궁화 금장'을 수여했다.

스카우트 무궁화금장은 연맹 발전을 위해 오랜기간 노력한 성인지도자에게 주는 연맹의 최고 훈장이다. 안 시장은 현 스카우트 인천연맹 노들담지역대 육성단체장으로 활동한 공을 인정받았다. 역대 주요 무궁화 금장수상자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이다.

문의 | 시 아동청소년과 ☎ 440-2889



국내 첫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도입

국내 첫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인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공사가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우리시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시범노선 전체 6.1km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2월부터 착공해 2011년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우리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고 보조를 받아 건설하는 이 노선에는 인천공항 교통센터~여객화물터미널~국제업무1지구~패션아일랜드~위터파크~인천공항철도 용유역의 6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 3천423억원은 정부가 2천362억원(69%), 인천국제공항공사가 856억원(25%), 인천시가 205억원(6%)을 각각 부담한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은 종합 시운전을 거쳐 2012년말 정식 개통되며, 모두 7편성(편성은 객차 2량 연결)이 최고 시속 110km로 무료 운행할 예정이다.

문의 | 시 대중교통과 ☎ 440-3832



인천대교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인천관광공사는 한국의 랜드마크인 인천대교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공사는 인천대교와 연계한 환승관광, 야간관광, 신혼여행 등의 신상품을 개발해 오는 11월부터 3월까지 일본, 중화권, 동남아 지역 숙박관광객 1만5천명을 인천에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현지의 50여 개 유력 여행사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해 청소년단체, 국제환승객, 기업 연수단 등을 대상으로 인천 1박 상품에 대한 공동 프로모션을 펼칠 예정이다.

공사는 인천대교의 개통으로 인천공항에서 송도국제도시까지 소요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됐고, 송도에 특급호텔은 물론 투모로우시티, 중앙공원, 65층 동북아무역센터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갖춰 관광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 인천관광공사 ☎ 220-5000



제177회 임시회 조례안 20건, 동의안 2건, 기타 6건 처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제177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20, 동의안 2, 기타 6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주요안건으로는 '민원콜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민원콜센터'위탁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 변경 시행에 따라 관계 자치법규를 정비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또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통과됐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및 수도감면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세상인의 수도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일건물 내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에도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 계량기 분리설치를 허용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처리했다. 이외에도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 용유주민 등 지역주민들의 통행료 지원을 2010년에서 2013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정비하여 소음,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인천시장이 제출한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인천도시관리계획(옹도지역)변경 결정안은 시의회의 조건부 의견을 달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고 통과됐다.



서구종합경기장, 계양경기장 현지시찰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자상)는 지난 10월 12일 서구종합경기장과 계양경기장을 현지시찰했다.

위원들은 서구 종합경기장을 돌아보면서 ▷ 설계 및 위치 확정이 되었는지 ▷공사기간이 40개월 정도로 부족하지 않은지 ▷ 공기일정을 맞추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고 ▷민자유치 현황 ▷사업비 투자내역 ▷공사비 5천억원 중 국비지원에 대해 물었고, 관련부서로부터 세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들었다.

계양경기장에서는 ▷사이클 경기장 보강 계획 ▷경기장 시설 건립후 기초 자치단체에 운영권을 넘겨주는 방안 검토 필요성 ▷아시아 경기대회 시설이 일부 구에만 편중되는 것은 아닌지 ▷도원체육관 활용 계획 등을 묻는 등 심도깊은 현지시찰을 벌였다.



인천여성복지관, 서구 국민체육센터 방문·점검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근)는 지난 10월 15일 인천여성복지관(남구 주안동 소재), 서구 국민체육센터(서구 검암동 소재)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고 관련부서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위원들은 여성복지관 현재 건물이 23년된 노후 건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소요예산이 85억원이 필요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 신축에 대해 검토 할것과 리모델링비가 85억원, 신축시에는 125억원이 예상되므로 현재의 위치가 입지적 조건이 좋으므로 향후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고 변화되는 가치성까지 검토 및 반영하여 충분히 검토된 후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는데 인근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운동장에 대한 지하주차장 설치 검토 및 방과후 운동장 활용을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영종 밀라노디자인시티 전시관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위원장 한도섭)는 지난 10월 15일 웅진군 자월면을 현지시찰하고, 치어방류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방류된 어종은 전복치어 6만마리. 치폐는 영흥면에서 자월면까지 이송했고, 치폐방류는 어선을 이용 방류지까지 운반을 해 다이버들이 잠수해 방류했다. 위원들은 치어방류 행사를 가진 뒤 자월면 어촌계장 및 어민들과 어촌의 애로사항과 현지 민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또 지난 10월 8일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밀라노디자인시티 전시관인 밀라노티디자인시티 트리엔날레관을 방문해 밀라노 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트리엔날레 전시홀, 밀라노 디자인시티홀, 레오나르도다빈치홀 등을 둘러보고 인천이 디자인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계양구 오류·이화지역 불량성토 관련 현장점검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문희출)는 지난 10월 15일 영종하늘도시 사업현황 및 밀라노 디자인시티 홍보관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영종하늘도시 사업 관련해 조속한 민원사항 해결 촉구, 단독주택용지 분양 실태, 제3연륙교 조속한 착공, 도시개발공사의 영종하늘도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관련부서에 당부했다.

또 밀라노디자인 시티 홍보관을 둘러보고 인천시가 앞으로 국내 최고의 디자인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10월 13일엔 계양구 오류·이화지역 불량성토 관련 현지시찰을 통해 청라지구내 호반건설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계양구 오류·이화지역에 반출한 불량토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진위 여부 파악 및 대책을 강구했다.

올 행정사무감사 계획 확정

인천광역시의회가 2009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시의회는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2009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시 본청 및 산하기관, 공사, 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가 11월 18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공보관실, 19일 국제협력관실, (재)인천국제교류센터, 20일 소방안전본부, 23일 기획관리실, 24일 자치행정국, 25일 감사관실, 26일 인재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 27일 (재)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문교사회위원회는 18일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19일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사업소, 23일 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24일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 26일(목)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27(금) 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행감을 실시한다. 산업위원회는 18일 경제통상국 및 관련사업소, 19일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 20일 항만공항물류국 및 관련사업소, 23일 경제자유구역청, 24일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 25일 농업기술센터, 인천환경공단, 26일 (재)송도테크노파크,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27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 등을 지적, 건의한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시재생국, 19일 인천도시개발공사, 20일 건설교통국, 23일 인천지하철공사, 24일 도시계획국, 25일 종합건설본부, 26일 인천교통공사, 27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디자인추진단 등에 대한 행감을 통해 시장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점검한다.

‘명품 안전도시 조성 위한 소방 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지상)는 10월 30일(금) 오후 2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명품 국제도시 안전인천 조성을 위한 소방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환경포럼 개최, UN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 유치, 송도~청라~영종으로 이어지는 경제자유구역 등 명실상부한 명품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시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삶의 질이 풍요롭고 살기좋은 명품 국제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식을 선진화하고 시민 사회, 의회, 학계, 방재기관 등 각계 각층이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는 인천대학교 이종열 교수, 주재발표 이정호 (주)웨이버스 이사, 지정토론자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 최진종 중앙소방학교장, 홍성복 (주)위니텍 이사, 박종학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박인옥 공존회의 운영위원 등 5명의 토론자가 다양한의견을 제시하였다. 시의회 윤지상 기획행정위원장은 토론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시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체계적 빗물관리 제도마련’ 위한 정책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산업위원과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인천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교수, 언론인, 연구소 등 빗물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관련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동 조례안은 산업위원회 한도섭, 김성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부족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호우로 인한 홍수 및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인천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반시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시설이나 부지면적과 연면적이 각각 2천㎡, 3천㎡ 이상인 건축물 등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저류된 빗물을 조정·청소·화장실 용수 등으로 사용하면 상수도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빗물관리 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시가 비용을 지원하고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도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김성숙 시의원은 “빗물, 하수도, 수도법 등 인천의 물순환 체계를 정립해야 할때”라며 “일단 빗물관리를 시작으로 각종 후속 작업을 펼쳐 고갈되는 수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대교는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대교 준공기념 대한민국 희망 개통식’이 지난 10월 16일 영종도에서 있었다.

이날 개통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윤성(남동구갑) 국회부의장, 이경재(서구·강화군을) 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 황우여(연수구), 송영길(계양구을), 신학용(계양구갑) 의원 등이 참석해 인천대교 개통과 우리시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인천대교 개통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인천대교 주탑까지 시범주행을 하며 인천대교의 장대한 위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인천대교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인천대교가 세계의 명소로 우뚝 서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G20 정상회의 유치 협력

인천시와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인천시-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담회에서 안상수 시장은 “내년 11월 한국 유치가 확정된 G20 정상회의의 인천 개최가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믿지만, 지역 출신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G20 정상회의의를 인천에 유치하는 것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시와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뜻을 모아 G20 정상회의를 인천에 유치하자고 했다.

이경재(서구·강화군을)시당위원장은 “G20 정상회의의가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리는 것이 0순위 아닌가 싶다. 그러하면 인천의 명품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우여(연수구) 의원은 “G20을 인천에 유치하자고 시에서도 얘기했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을 합쳤다. 의원들도 중앙정부에 인천 유치를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이윤성(남동구갑) 의원은 “치밀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몇 가지에 초점을 두고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홍일표(남구갑) 의원은 “G20은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보다 도시브랜드 제고에 더 큰 효과가 있다. 도시별 경쟁에서 치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M대우 자금난 대책 주문

국회 정부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홍영표(부평구을) 국회의원은 GM대우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홍 의원은 “GM대우에 관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신차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기업회생에 심각한 차질이 온다”며 “산업은행이 지혜로운 판단을 해 GM대우가 빨리 정상화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인천항-부산항 연계 육성 주장

정부의 항만정책이 인천항과 부산항을 중점적으로 육성시키는 ‘투포트(Two-Port) 시스템’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원(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출입 컨테이너의 기착, 중착지는 영남권과 수도권으로 크게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도착지와 기착지가 경부축을 중심으로 양분돼 있는 만큼, 부산항과 인천항을 연계 육성시키면 물류비를 절감하고 국내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서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다

글 · 심민석 수봉도서관 관장

도서관은 오랫동안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오늘날 정보에 접근하기가 쉬워지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누구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오늘밤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교육에서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은 여전히 모든 기회의 토대이지만, 그 토대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주춧돌은 역시 독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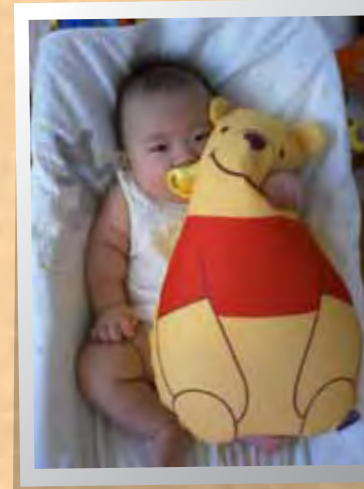
지식이 진정한 힘이고, 읽기 능력이 기회와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세상에서 부모와 사서로서, 교육자와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는 아이들에게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 넣어 꿈을 이루게 할 기회를 부여할 책임이 있다.

도서관은 또한 사회문화기관이다. ‘문화는 도서관으로 스며들고 도서관은 문화를 뿌리내리게 한다’는 말이 있다. 문화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배울 수 있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좋은 책을 쉽게 만나고, 어린 시절부터 도서관 이용을 자연스럽게 생활화 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또한 도

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다. 도서관이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라면, 그리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었을 때 마다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러한 기억은 도서관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도서관을 찾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도서관을 편안한 공간으로 느끼고, 쉽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바쁜 사회의 틈 속에서 혹시 무관심과 소외 속에서 외로운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지 않아도 좋을 곳, 도서관은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노인이 되어서도 아낌없이 주는 친구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단순히 책과 지식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통해 희망을 키울 수 있고 즐겁게 오갈 수 있도록, 새롭고 재미난 도서관 서비스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이 지식을 넓히고 교양을 높일뿐 아니라 생활 전반이나 지역에 관한 실천적인 정보도 아울러 제공받고,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장려하는 열린 공간으로써 이용자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면 좋겠다. 이름 없는 시민의 잠재 능력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깊은 포용력이어야 말로 도서관의 새로운 가치창조가 아닐까 한다.



누가 곰돌이일까요?

울봄 세상의 빛으로 태어난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 곰돌이 푸우 인형 속에 파묻혔어요. 누가 곰이고 누가 아가일까요? 정말 귀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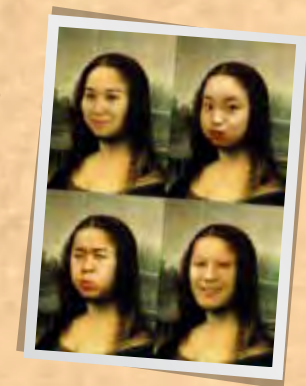
신서율 | 서울시 논현동



진짜 모나리자는 누구?

업무를 보다, 잠시 쉬는 시간. 무료함을 달래려 직원들이 각각의 얼굴을 찍어 포토샵으로 합성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가장 모나리자랑 닮았나요?

박동숙 | 서울시 강남구



굴 소녀가 되었어요

‘굴을 좋아한 나머지 굴 소녀가 되어 버렸어요~’ 직원 하나는 포즈를 취하고, 하나는 그림이 그려진 굴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리우드 특수효과 저리 가라입니다~

김석준 | 서울시 중랑구



행복한 부자의 외출

세계도시축전장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부자의 모습이 행복하고 좋아보였다. 계속 따라다닌 끝에 5분 만에 촬영에 성공!

김은철 | 안산시 단원구



도시축전 만만세~

인천세계도시축전이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인천시민으로서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도 도시축전이 소중하게 자리 잡길 바랍니다. 도시축전 만만세~

이상곤 | 남동구 구월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자유롭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 있는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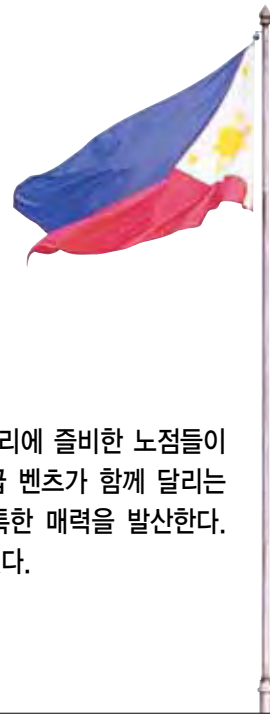


자동차라고 뽕뽕~

외할머니 댁에 놀러갔다가 공원에서 사촌형아 자동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자기도 운전을 한다고 손을 좌우로 돌리네요. 예고고 외할머니는 허리가 부러져요~

노승윤 | 연수구 동춘동

‘낙천’ DNA가 흐르는 사람들



마닐라는 흥미롭다. 아시아 최대 쇼핑몰과 거리에 즐비한 노점들이 공존하고 군용트럭을 개조한 지프니와 최고급 벤츠가 함께 달리는 마닐라는 서구문화와 동양문화가 혼합돼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우리시와 자매관계를 맺은 지 일년 남짓 되었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세계은행의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어디에 있을까? 답은 필리핀 마닐라다. 1965년의 마닐라는 ADB 본부를 유치할 만큼 일찍이 국제도시로 성장했다. 한때 필리핀은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 금융시장의 주무대였다. 정치불안, 빈부격차 등으로 한동안 심각한 침체에 있었지만 필리핀은 다시 옛 영화를 꿈꾸며 기지개를 펴고 있다.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60년이다. 양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6개월 만인 49년 3월 3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한국 입장에서 필리핀은 다섯번째 수교국이었을 정도로 두 나라의 인연은 두텁다.

필리핀은 수교 1년 후 발발한 한국전쟁에 7천여 명을 파병하는 등 지난 60년 동안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

필리핀 거주 한국교민은 7만 5천여 명으로 동남아 지역 최대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에 입국하는 관광객, 유학생, 은퇴 이민자 가운데에는 한국인이 가장 많다. 한국에는 6만여 명의 필리핀인이 살고 있다. 인천~마닐라 항공 노선이 매일 운항할 만큼 두 나라는 일일생활권에 있다.

팔색조의 도시

마닐라는 필리핀의 수도로 스페인 통치 시대부터 필리핀의 중심도시였으며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마닐라는 실질적으로 13개 행정지구의 집합체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메트로 마닐라’라는 표현이 옳다. 이런 메트로 마닐라는 상업과 금융의 중심이자 모던도시로 대표되는 마카티시를 비롯해 여러 시들로 구성된다. 메트로 마닐라는 필리



핀 7천107개 섬들을 아우르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중심지다.

각각 고유의 지방색을 경험할 수 있고, 다채로운 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 메트로 마닐라를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역동적이고 화려한 도시로 만든 바탕이다. 유리 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고층 빌딩들이 스페인 식민지 당시의 건축물 바로 옆에 세워져 있으며, 현대적인 쇼핑센터 옆 거리에서는 노점 행상이 즐비하다.

거리에는 외제 승용차는 기본이고 군용트럭을 개조한, 필리핀을 대표하는 교통수단인 형형색색의 지프니와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사이드카를 붙인 트라이시클이 뒤섞여 언제나 활기가 넘치며 독특한 풍경을 자아낸다.

마닐라에서 무엇을 먹을까 결정하는 데는 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관광안내책자만 넘겨봐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음식 전문 레스토랑이 넘쳐난다. 호화스러운 음식점과 길거리 식당에서 만날 수 있는 신기하고 맛있는 요리들이 사람들의 혀를 유혹한다.

가슴 아픈 도시

옛 스페인 통치의 역사를 안고 있어 도시 곳곳에 스페인풍의 건물이 많다. 스페인 문화와 필리핀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색다르게 다가온다.

‘성벽도시’로 불리는 인트라무로스는 스페인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 옛 스페인 정복자들의 거주지, 교회, 학교, 정부 청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2차 대전 중 폭격을 맞아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다. 다행히 성 오거스틴 교회는 기적적





으로 전쟁 때 아무런 외상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기적의 교회’라 불린다. 지금도 굳건히 그 자리에서 바로크풍 석조 건물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 교회는 18세기에 만들어진 파이프 오르간으로 유명하다. 1898년 스페인이 미국에 항복하는 조인식이 거행된 곳이기도 하다.

인트라무로스 안에는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마닐라 대성당도 있다. 1581년 건축된 후 화재, 지진으로 손상돼 6차례에 걸쳐 개·보수되었다. 로마네스크 건축양식으로 창문은 장미 장식, 지붕은 착색유리 장식으로 돼있는 등 우아한 건축술을 엿볼 수 있다.

산티아고 요새는 필리핀인에게는 역사의 용이처럼 가슴 아픈 곳이다. 스페인 군대의 본부였던 곳으로 1571년 착공하여 필리핀 국민의 강제노역에 의해 거의 150년 만에 완공되었다. 마닐라 독립운동가인 호세 리잘이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되는 등 스페인과 일본군 점령시절 많은 필리핀 영웅들이 투옥되거나 살해된 곳이다. 산티아고 요새를 걷다 보면 바닥을 따라 길게 찍혀있는 누군가의 발자국을 만나게 된다. 감옥에서 시작된 이 발자국은 리잘의 것으로 그 끝은 사형장이다.

성벽에 올라서면 유명한 파시그강과 그 강 너머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와 가슴까지 시원해진다.

석양이 아름다운 마닐라베이

마닐라에 가면 들리게 되는 리잘공원이 있다. 뛰어난 시설이나 특별한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시내 중심가 어디에서나 걸어 갈 수 있어 시민의 산책코스로 인기가 있다. 공원 길 건너의 마닐라 베이는 아름다운 석양으로 유명한 곳이다.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될 정도로 노을 질 무렵 마닐라 베이의 운치는 특별하다. 선선한 바다 바람과 시원한 필리핀 맥주 산미구엘은 환상적인 궁합이다.

마닐라 사람들에게 유독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물으면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들은 기뻐도 웃고 슬퍼도 웃고, 언짢아도 웃으려 노력한다. 이렇듯 전 세계 어떤 도시도 소유하지 못한 마닐라만의 매력은 친절하고 낙천적인 사람들이다. 그들과 어울리면 물질을 가져야만 반드시 행복하다는 통념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다.



우리시와 마닐라시는 자매도시다. 우리시는 마닐라시와 국내 도시 중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안상수 시장과 알프레도 림(Alfredo S Lim) 마닐라 시장은 지난해 5월 8일 자매도시 결연식을 갖고 사회간접자본시설, 도시개발, 통상투자, 항공, 관광, 여학연수 등의 분야에서 양 도시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마닐라시는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장 내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필리핀의 문화를 인천에 소개했고 아·태 도시정상회의(APCS)에 참석하는 등 인천과의 교류를 본격화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5월9일 필리핀 말라카냥 대통령궁을 방문, 아로요 대통령과 만나 필리핀과의 교류 확대를 협의했다. 한편 우리시는 지난 10월 23일 이창구 행정부시장님이 필리핀을 방문, 알프레도 림 시장을 만나 태풍피해에 대해 위로하고 성금 5만달러를 전달했다.



끼와 재능으로 인천을 빛낸다

‘인천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인천을 대표하는 연예인들이 모여 ‘인천사랑회’를 결성했다. 인천사랑회는 앞으로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문화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우리시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인천사랑회의 중심에 있는 이혁재와 송도센트럴파크에서 만났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인천을 사랑하는 인천 사람

청명한 하늘아래 초록으로 빛나는 송도센트럴파크에서 방송인 이혁재를 만났다. 얼마 전 급성담낭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몸 상태가 다소 걱정되었는데, 밝고 건강한 웃음은 여전하다.

이혁재는 안정이 필요하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수술 후 바로 며칠 뒤에 ‘인천사랑회’를 발대했다. 인천사랑회는 이혁재를 주축으로 박은혜, 신지, 지상렬, 염경

환, 김구라, 박지선 등 인천을 대표하는 연예인들이 뜻을 모아 만든 봉사단체다.

인천사랑회의 발대식은 지난 9월 25일 인천 송도파크호텔에서 인천사랑회 회원들과 인천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안상수 시장이 참석해 인천사랑회가 우리시를 널리 알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인천문화의 발전을 꿈꾸며

이혁재는 인천을 대표하는 방송인으로서 인천의 문화산업을 키우는 일에도 관심이 크다. 공연기획사 HH컴퍼니의 대표이기도 한 그는 얼마 전 비, 2PM, 2NE1, 소녀시대 등 한류스타들이 한무대에 선 ‘인천코리안웨이브 페스티벌’을 관객 4만8천명을 동원하며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는 국제도시 인천이 우리 문화가 해외로 진출하는 전초지가 되어야 한다며, 인천코리안웨이브 페스티벌을 부산국제영화제 수준의 국제적인 행사로 키우겠다는 아무진 포부를 밝혔다.

“인천코리안웨이브 페스티벌은 단순한 공연행사가 아닙니다. 향후 인천을 대표하는 킬러콘텐츠(Killer Contents)로 개발해 인천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는 데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끼와 재능이 넘치는 개그맨과 MC로 브라운관을 누비던 이혁재. 그런 그가 대규모의 공연을 기획한다고 하자 사람들은 고개를 가웃했다. 하지만 그는 동료 연예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참할 것을 부탁하고, 10여 년간 연예계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다 쏟아 부으며 열정을 다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뜻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인천은 저의 고향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의 품에서 뛰어놀던 동네이고, 현재 가족들과 삶을 꾸리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할 도시이지요.”

인천이 당신에 있어 어떤 의미냐는 마지막 질문에 ‘인천은 고향’이라고 답하며 활짝 웃는 그. 개그맨, MC로서가 아닌 ‘인천인’ 이혁재가 ‘인천을 문화도시로 빛내겠다’는 확신에 찬 발걸음을 성큼성큼 옮기고 있었다.

이혁재가 방송인으로서 바쁜 스케줄과 아픈 몸도 마다하지 않고 인천과 인천시민들을 위해 힘쓰는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그가 ‘인천을 사랑하는 인천사랑’이기 때문이다. 이혁재는 인천에서 태어나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인천에서 살고 있는 ‘인천 토박이’다. 그는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보금자리를 틀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이처럼 잘 어울리는 도시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송도국제도시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고향 인천을 위해 지역출신 연예인으로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 인천사랑회를 결성했습니다.”

아이들 가슴에 별을 새기고 싶어

인천사랑회는 발대식 이후 인하대병원과 가천길대학병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수술비 200만원을 지원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인천사랑회는 이를 시작으로 인천과 인천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우리시의 문화관광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인천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인천사랑회는 학계, 재계, 의료계와 연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할 것입니다. 낙도 어린이들을 인천으로 초대해 어린이캠프를 열고, 교육프로그램과 건강검진, 수술지원 등의 의료혜택을 통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혁재는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작년 예쁜 딸아이를 낳고 세 아이의 아빠가 된 그이기 때문일까,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고 싶다는 말에 진심이 깊이 담겨있다.



징매이 '에코브릿지' 인천의 S자형 녹지축을 잇다

계산동에서 서구 연희동으로 넘어가는 대로의 고개가 징매이 고개다. 징매이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경명현(景明峴)이라고도 한다. 지금은 실새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차가 다니는 번잡한 곳이 됐지만 옛날엔 임꺽정이 자신의 근거지를 삼을 만큼 외지고 험한 고개였다. 이 고개를 중심으로 양쪽에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과 천마산이 자리하고 있어 가히 인천생태계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글 · 이웅남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14년간 단절됐던 계양산~천마산 연결

징매이 고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통로가 개설됐다. 인천의 S자형 녹지축을 잇고 계양구 계산동의 계양산과 서구 공촌동의 천마산을 연결한다. 8차로 도로인 경명로 개설로 14년간 단절됐던 도로를 이어 이산가족이 됐던 야생 동물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의 주요 생태축인 계양산 일대는 노린재, 딱정벌레 등 곤충 30여 종과 황조롱이, 오색딱따구리 등 조류 60여 종 그리고 각종 파충류가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 1995년 계양산과 천마산 사이를 가로지르는 경명로가 개설되면서 생태계 단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고 생태복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당초 이 능선은 하나의 산줄기였기에 생태통로 개통으로 계양산과 천마산의 주인인 야생너구리, 고라니, 꿩 등 산짐승들은 생명의 위협을 주었던 차도를 건너지 않고, 이산저산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징매이 고개 생태통로는 2007년 7월부터 산을 잇는 작업을 시작해 2년 동안 계속됐다. 예산만도 국·시비 등 148억원이 투입됐다.

생태통로는 계양산과 천마산을 연결하는 길이 80m, 폭 100m, 높이 12m 규모로 왕복 8차선 도로에 아치형태의 터널을 만들었다. 터널 위에는 2~5m 두께의 흙을 덮어 2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것은 물론 야생동물이 이동하는

안전통로를 조성했다. 연못2개소와 돌더미, 나무더미, 조류먹이 등의 비오톱을 만들어, 이곳을 지나다니는 야생 소동물의 서식지로 조성했다.

쌍굴모양의 아치형 터널은 파형강판이라 불리는 재료로 터널을 만들었는데 이 강판 1㎡가 5t의 무게를 견딜수 있다고 한다. 강판지붕 위로 15t트럭 3천800대 분량의 흙을 쏟아 부었다고 하니 특수강판을 쓸만도 했다.

돌무더미 등 동물들 숨을 곳 마련

생태통로에는 교목을 심어 차량불빛을 차단하였으며, 사람이 이동하는 산책로나 등산로는 동물이동로와 떨어진 곳에 조성했다.

이곳에는 인공습지 역할을 하는 저류조 2개와 너구리 등 동물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돌무더기, 조류먹이 공급대가 각각 10개, 동물 유도펜스 등 이곳을 지나는 동물들을 위한 각종 시설이 완비돼 있다. CCTV도 4개나 설치돼 어떤 동물들이 생태통로를 지나다니는지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

징매이 생태통로는 인천의 남북 S자 녹지축 연결사업의 시발점이다. 내년엔 원적산과 함봉산을 잇는 생태통로 사업이 시작되어 연수구 봉재산까지 52km에 이르는 녹지축이 연결되면 그동안 단절됐던 한남정맥이 온전히 복원된다.

인천의 생태도시 조성사업 어디까지 왔나

인천의 전형적인 산지 지형은 S자형. 산업화와 현대화로 인천의 많은 녹지축과 산이 잘려나가고 단절되는 아픔을 겪었다. 시는 오랜기간 방치되고 파괴된 인천의 S자형 녹지축을 보도육교와 생태통로 등으로 잇는 작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250억원을 들여 총 52.2km에 이르는 S자형 녹지축과 습지, 등산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원적산~함봉산에도 생태통로 생겨요

부평구와 서구에 걸쳐 있는 원적산은 1989년 왕복 6차선 도로 건설로 양분된 채 생태통로가 단절된 상황이다. 원적산길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사업은 원적산과 함봉산을 잇는 원적산길 구간에 자연환경 보전·복원과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개설된다. 원적산과 함봉산을 잇는 작업은 내년부터 시작돼 2년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원적산은 경기도 안성시 칠성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김포시의 문수산에 이르는 한남정맥 산줄기의 하나로 인천광역시의 부평구와 서구에 위치한 산이다.

산지연결 브릿지로 산과 산을 이어요

단절된 녹지축을 보도육교로도 잇는다. 함봉산~백운공원(경원로), 만월산~만수산(주안산길), 문학산~청량산(비류길, 영남APT), 청량산~봉재산(앵고개길)에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끊어진 산과 산을 잇게 된다. 이중 내년엔 만월산~만수산(주안산길),내 후년엔 문학산~청량산(비류길, 영남APT)을 잇는 보도육교 즉 산지연결 브릿지(아치교 형태) 출렁다리 공사가 시작된다. 이 다리는 주요산지에 대한 연속적인 등산이 가능하도록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고, 도시 숲 이용 및 녹지보전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생활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건강하고 상쾌하게 걷는 녹도(Green-way)

서구 천마산~원적산길(하나apt~아나지길), 십정산~만월산(경인로), 만수산~거마산(무네미길), 오봉산~문학산(논현~선학동 G·B농경지)을 잇는 녹도(綠道)조성 사업도 진행된다. 녹도연결사업은 도시개발, 농경지 등으로 단절된 산림이동 동선을 녹도로 조성하고 도시 숲↔녹도↔도시숲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성된다.



혈액형에 관한 진실



병원에 오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 혈액형과 수혈에 관한 것입니다. 환자들이 흔히 물어보는 혈액과 수혈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글·임재균 인천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Q 혈액형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혈액형은 적혈구 항원의 형태, 수적이상 및 가계의 유전적 차이 등의 원인으로 ABO식, Lewis식, P식, MNSS식, Rh, Kell식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혈액형은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Rh식 혈액형은 적혈구 막의 항원이나 항원결정인자에 의해 D, C, c, E, e 등 약 40개의 항원으로 나누며, 적혈구 세포막에 각각의 항원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Weak D형, 바디바형 등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루이스식은 정상적인 사람의 혈청 속에 드물게 존재하는 동종이며 불규칙 항체를 가지고 있으며 P식은 P1, P2, Pk1, Pk2, p형의 5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개인간 혈액형의 차이는 매우 드물긴 하지만 면역학적 기전을 유발시켜 수혈 부작용 등의 원인을 발생 수 있습니다.

Q AB형과 O형 혈액형 부모사이에서 AB형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나요?

A 혈액형이 AB형인 사람은 하나의 염색체에 A 유전자를, 다른 하나의 염색체에 B 유전자를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O형인 사람과 AB형인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혈액형은 A형 또는 B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AB형과 O형이 결혼해 아이를 낳더라도, 아이의 혈액형이 A형이나 B형이 아니라 AB형 또는 O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 가운데 AB형인 사람이 통상적인 AB형이 아니라, 시스-AB형이기 때문입니다. 이 혈액형은 비정형 AB형으

로, A와 B 유전자가 각기 다른 염색체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염색체에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혈액형 판별을 위해서는 현혈 혈액검사만으로는 안 되며 병원에서 정확한 혈액형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혈액형이 다르면 수혈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몸을 크게 다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혈액형이 다른 사람의 피를 받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적혈구들이 서로 엉겨 덩어리가 되어 모세혈관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응집반응이라고 합니다. 혈액형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혈과 관계있는 것은 ABO식 혈액형과 Rh식 혈액형입니다. 보통 ABO식에서 A형은 A형과 O형, B형도 같은 B형과 O형. AB형은 A, B, O, AB형의 피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O형은 O형의 피만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모두에게 피를 줄 수 있습니다.

한편 Rh식에서는 혈액형을 Rh 양성과 Rh 음성 두 가지로 나눕니다. Rh식 혈액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Rh 음성입니다. Rh 양성은 Rh양성이든 Rh 음성이든 다 받을 수 있지만, Rh 음성은 Rh 양성을 받으면 응집반응이 일어납니다. 결국 Rh 음성은 같은 Rh 음성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Rh 음성인 사람이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아서 수혈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라톤 문화 꽃핀 도시, 인천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마라톤의 열기는 인천에서부터 불이 지펴졌다. 그 까닭은 우리 고장 인천이 개화기 신문물이 도입된 선진 도시이자 42.195km를 달리는 장거리 도로 경주에 적합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글·조우성 시인·인천시 시사편찬위원

경인간 왕복 60리 마라톤대회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마라톤대회는 1920년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서울을 한 바퀴 도는 ‘경성일주대회’였다. 그 후 1927년 12월 4일 제강상회(諸岡商會) 주최로 인천~경성 간 역전(驛傳)경주대회를 개최하면서 인천은 줄곧 마라톤 대회로 각광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인천 체육계도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1927년의 경인역전경주대회 참가 선수들은 1구간 인천~주안, 2구간 주안~소사, 3구간 소사~오류동, 4구간 오류동~영등포, 5구간 영등포~경성 등 5구간 25리(里)3분(分) 코스를 뛰었는데 12시 48분 인천 조선매일신문 본사 앞에서 출발한 양정고(養正高) 팀이 경성부청 앞 결승점에서 우승 테이프를 끊었다.

본격적인 마라톤대회가 열린 것은 1930년 4월 3일 조선체육협회에 의해서였다. 대회 명칭은 ‘경성인천간 왕복60리 역전 마라손대회’였다. 경성우편국 앞을 출발해 인천세관 앞을 되 돌아오는 코스였다. 이 대회는 매년 열려 전국적인 마라톤 붐을 일게 했다.



인천에서 마라톤대회가 처음 열린 것은 기록상 1935년 4월 21일이었다. 오전 10시 12분 40여 명의 선수들은 조선매일신문사 앞을 출발하여 시내를 일주한 후 결승점인 월미도로 향하였는데, 출전 선수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동아일보 인천지국 소속 이안순(李安淳)이 우승하여 화제를 모았다.

계간 황해문화 40호 ‘인천, 이 사람’(김윤식 시인 집필)에는 화제의 주인공 이안순이 그 이듬해 열린 ‘베를린올림픽마라톤 대표선발전’에 동아일보사 대표로 출전해 손기정 선수 등과 계속 선두 그룹에서 달렸으나 기량이 달려 노량진 부근에서 쓰러졌던 안타까운 일화를 전하고 있다.

흑한기에 인천에서 여수까지

그 무렵 마라톤 붐이 크게 일자 이색적인 ‘내한(耐寒) 마라손’도 등장했다. 1936년 1월 25일 인천환옥미두취인소(丸玉米豆取引所)에 근무하는 김용균(金鎔均·당시 24세)이 흑한을 무릅쓰고 인천을 출발, 전남 여수까지 주파했는가 하면, 월미도 벚꽃놀이가 한창인 5월 10일에는 40여 명의 선수가 출장한 ‘인천관영(觀櫻)마라손대회’도 열렸다.

1930년대 마라톤의 하이라이트는 손기정 선수가 장식했다. 1936년 8월 9일, 베를린 하계 올림픽대회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침내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손기정 선수의 우승은 전 국민을 울렸고, 인천 출신의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가 주도한 일장기 말소 사건은 인천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드높였다.

이어 1937년 11월 3일에는 조선매일신문이 주최한 인천~경성 간 역전계주(驛傳繼走)경기대회가 열렸다. 조선총독부 앞을 출발한 이 대회에는 양정고가 1위, 인천상업학교가 2위,

제2고보가 3위를 차지했다.

1940년, 또 한 명의 인천 출신 마라톤 선수가 등장했다. 동아일보사가 10여 년간 계속해 온 제11회 경영단교경기대회(京永斷郊競技大會·경성과 영등포 왕복)에 출전한 인천 홍중상 공회사(弘中商工會社) 소속 현정효(玄正孝) 선수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전국에서 모인 42명의 건아들이 참가한 대회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 우승기, 우승배, 매달, 상장 등을 받았다.

아베베, 인천을 달린다.

그로부터 인천 마라톤은 전국에 이름을 내기 시작해 광복 직후인 1947년에는 보스톤 ‘마라손 세계제패 개신기념 경인양 시교환(京仁兩市交驛)역전경주대회’를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인천 선수들은 서울시청에서, 서울 선수들은 인천시청에서 출발하여 마라톤으로써 우의를 다지자는 대회였는데, 인천의 6개 팀은 준비가 되었으나 서울 팀 사정으로 불발되고 말았다. 그러나 경인간왕복역전경주대회는 우리나라 마라톤 경주의 대명사로 떠올라 매년 계속되었다. 1950년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1, 2, 3위를 하며 마라톤 왕국임을 과시했을 무렵에도 인천공고(仁川工高), 전인천군(全仁川軍) 등이 경인역전경주대회에 참가해 기세를 올렸으나 6·25전쟁의 발발로 맥이 끊기기도 했다. 전후 경인역전경주대회는 그 전통을 되살려 나갔다. 1959년 한국일보사와 대한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했던 제1회 9·28수복 기념 국제마라톤 대회가 그것이다. 서울 수복을 기념해 참전 16개국 마라톤 선수들을 초청, 인천~서울 간 코스를 달렸다. 9월 28일 인천 해안동 로터리를 출발하여 서울 중앙청 앞까지 42.195km의 풀코스를 달리는 경기였다.



1. 9·28 수복 국제마라톤대회 출발지 표지석(인천 해안동 소재)을 둘러보고 있는 김정렬 인천시장과 관계자들(1966년 10월 30일).
2. 1940년, 제11회 경영단교경기대회(京永斷郊競技大會·경성과 영등포 왕복)에서 우승을 차지한 인천의 현정효(玄正孝) 선수가 골인하고 있는 모습(동아일보 사진).
3. 1947년 보스턴마라톤 우승자 서윤복, 남승용 선수 등이 인천항으로 귀국, 중앙동에서 카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사진작가 김석배 선생 제공

1966년 10월 30일 열린 제3회 대회에는 14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올림픽 2연패의 영웅이자 맨발의 마라토너, 6·25전쟁 참전용사로 널리 알려진 이디오피아의 비킬라 아베베가 참가해 진가를 높였다. 아베베는 2시간 17분 4초로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다. 이 대회는 1969년 9월 28일 제4회 대회로 막을 내렸다.

인천대교 개통기념 국제마라톤대회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가까이 증대되면서 마라톤은 소수 엘리트의 스포츠에서 국민 대중운동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건강과 레저, 양질의 삶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일반화가 마라톤 붐을 일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인천육상경기연맹과 지역지 인천일보사가 공동으로 시작한 인천국제마라톤대회와 강화해변마라톤대회가 그 대표적인 예다. 특히 인천국제마라톤대회는 광복 이후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공인을 받은 국내 최초의 하프코스 마라톤대회로 올 대회에 1만여 건각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지난달 11일에 열린 ‘인천대교 개통 기념 2009 국제마라톤대회’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대교 마라톤대회는 인천의 새로운 명물 랜드마크로 등장한 인천대교(仁川大橋)의 개통을 축하하는 동시에 인천이 ‘동북아의 맨해튼’으로 부상했음을 내외에 알리는 해상 축제였던 것이다.

이에 동참한 3만여 마라톤 마니아들은 일생일대 한번뿐인 레이스를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기 위해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 해외 선수 27명을 위시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가족, 직장 동료, 동아리 회원들은 가을의 바닷길 정취를 만끽하며 레이스에 임했다.

미샤 마이스키 첼로 독주회



세계 3대 첼리스트로 꼽히는 첼로의 거장, 미샤 마이스키의 연주는 시적이며 섬세하고 정교한 아름다움을 눈부신 테크닉 속에 함께 표출해내고 있다. 국내에선 첼리스트 장한나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그는 이번 연주회에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주제에 의한 일곱개 변주곡과 마누엘 데 파야의 스페인 민요 모음곡 외에도 라흐마니노프와 쇼스타코비치의 곡도 들려준다.

| 일시 | 11월 21일(토) 오후 8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티켓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 문의 | 엔티켓 1588-2341(www.enticket.com)

가야금 연주 나빌레라



‘나빌레라’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한국음악과에 재학중인 다섯명의 실력있는 가야금 연주자로 이루어진 팀이다. ‘나빌레라’는 대중들에게 우리 가야금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욱더 쉽게 전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나라 민요와 동요, 영화음악, 비틀즈모음곡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바민요 등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 일시 | 11월 11일(수) 오후 7시
| 장소 | 부개문화사랑방
| 티켓 | 2천원
| 문의 | 부개문화사랑방 ☎ 507-5996

구보댄스컴퍼니 피론의 돼지



구보댄스컴퍼니의 〈피론의 돼지〉는 현 대 무 용 과 재즈댄스, 스트릿댄스 등 다양한 춤사위에 연기와 극적인 요소가 더해진 실험적 무용극이다. 험난한 바다에서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드러나는 인간 내면의 본질을 풍자한 작품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육적인 메시지와 함께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고찰을 던진다.

| 일시 | 11월 7일(토) 오후7시, 8일(일) 오후5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 문의 | 인천&아츠 ☎ 420-2027~8

커피콘서트 김선영의 뮤지컬 라이프



〈커피 콘서트〉는 향기로운 커피 한잔과 함께 공연관람 외에도 무대 주인공이 들려주는 작품에 대한 해설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즐거운 공연이다. 올해 다섯 번째 무대는 〈미스 사이공〉, 〈에비타〉 등에서 최고의 가창력과 연기력을 자랑하는 뮤지컬계의 디바 김선영이 지금까지 무대에서 들려주었던 뮤지컬 아리아들을 비롯해 재즈, 가요 등 다양한 음악을 노래한다.

| 일시 | 11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 전석 1만원
| 문의 | 엔티켓 1588-2341(www.enticket.com)

닥종이인형극 ‘이불꽃’



부모세대의 어린 시절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가족사랑을 정성껏 담아 낸 아기자기한 인형극이다. 어린 연령층만을 위한 작품만이 아닌, 현재의 부모들이 그들의 부모님과 어린시절을 회상하게 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공감토록 한다. 한국적 상상과 비유, 유머를 우리재료에 담아 눈높이를 낮춘 작품으로 모든 연령층이 흥미롭게 관람 할 수 있는 가족사랑 드라마다.

| 일시 | 11월 19일(목) 20일(금) 오후 7시
| 장소 | 부평문화사랑방
| 티켓 | 2천원
| 문의 | 부평문화사랑방 ☎ 505-5995

강아지 서커스와 버블쇼



강아지 서커스는 다양한 견공들을 포함한 동물과의 교감으로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애견들의 퍼포먼스이다. 세줄 넘기, 공타기, 사다리타기, 탈굴리기 등의 묘기를 펼친다. 빅버블쇼는 신비로운 비눗방울을 이용해서 꿈과 환상의 아름다운 버블의 세상으로 초대한다.

| 일시 | 11월 28일(토) 오후 2시
| 장소 | 한중문화관
| 티켓 | 무료(인터넷 예약)
| 문의 | 한중문화관 ☎ 760-7860

종합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11월의 만남’

할머니의 그림자 상자



다양한 그림자극의 시각적인 요소들과 그림자 상자에서 하나씩 튀어나오는 할머니의 어린시절의 추억들을 통해 어른과 아이가 함께 감동과 즐거움을 얻는 가족연극이다. 아이들은 바로 눈 앞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그림자들을

통해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함께 극장을 찾은 부모들이 아이들보다 더 눈시를 적시며 감동받는다.

| 일시 | 11월 14일(토)~15일(일) 오후 2시, 4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 전석 1만 5천원

노래하듯이 햄릿

햄릿의 모든 인물들을 4명의 광대가 인형과 가면을 통해 연기하고, 여기에 28곡의 아름다운 노래가 덧붙여진다. 새로운 접근과 노련한 배우들의 양상을 연기가 어우러져 이제껏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햄릿’을 만날 수 있다.



| 일시 | 11월 21일(토)~22일(일) 토요일 오후 3시, 6시 / 일요일 오후 5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 전석 2만원

뉴보잉보잉



6년째 공연 중인 연극 〈뉴보잉보잉〉은 6개월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탄생되는 주인공들을 통해 수많은 스타를 배출하였다. 마르코 카블레티의 원작을 각색해 선보이며 시원한 웃음으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주는

매력적인 연극이다.

| 일시 | 11월 26일(목)~29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 토요일 오후3시, 7시 / 일요일 오후 4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 전석 2만5천원
| 문의 | 엔티켓 1588-2341(www.enticket.com)

Culture Calendar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	3 제11회 인천크리스찬 양상불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전석초대 ☎ 528-2854 제4회 남구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880-4287	4 제42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 422-2426 한국음악협회인천시회 요철복통 클래식 '빈치토리 양상불' 부개사랑방 오후 7시 / 2천원 ☎ 507-5996	5	6 바순양상불 '파곳티시모'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전석 2천원 ☎ 505-5995	7 이미자 데뷔 50주년 기념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 6시 9만9천원~6만6천원 ☎ 1544-3396 (주)편앤쇼엔터테인먼트 지역예술단체 지원작품 II 피론의 돼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일반2만원, 청소년1만원 ☎ 420-2027~8	8 지역예술단체 지원 작품 II 피론의 돼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5시 일반2만원, 청소년1만원 ☎ 420-2027~8 종로매 올림마당 20주년 정기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아외공연장 오후 1시 / 무료 ☎ 426-3600
9	10 인천장로성기단 제17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863-9440	11 Storyteller의 '자아여행'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8시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 010-7757-1182 김현숙현대무용단 이대기아름 연주단 '나빌레라' 부개사랑방 오후 7시 / 2천원 ☎ 507-5996	12 더스토리 오브 노들담 드파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8시 R석3만원, S석2만원 ☎ 023427-1358 / 다원뮤지컬 다원뮤지컬	13 더스토리 오브 노들담 드파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8시 / R석3만원, S석2만원 ☎ 023427-1358 / 다원뮤지컬 KBS클래식FM 희귀영상으로 만나는 명연주 명음반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출 오후 7시 / 전석 무료 ☎ 760-3455 경인방송 백용규의 가고 싶은 마을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6시 전석 2천원 / ☎ 505-5995	14 제10회 YMCA 알핀로제 어린이 요들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초대 ☎ 431-8161 YMCA알핀로제어린이요들단 제5회 소극장 연극축제 11월의 만남 할머니의 그림자상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2시 4시 / 1만5천원 ☎ 1588-2341	15 인천교사양상불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학생1만원 ☎ 880-7903 할머니의 그림자상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2시 4시 / 1만5천원 ☎ 1588-2341 오페라 드림콘서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출 오후 4시 7시30분 1만원, 2만원 ☎ 760-3455
16	17 교육체험뮤지컬 풀쫄리와 아폴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3시 / 무료 초대 ☎ 440-2783	18 이은주 무용단 레파 토리 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무료 ☎ 760-8860 커피콘서트 김선영의 뮤지컬라이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 420-2027~8 출산가족사랑 닥종이인형극 '이불꽃' 부개사랑방 / 오후 7시 / 2천원 ☎ 507-5996	19 인천시립교향악단 관현악의 향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1만원, S석7천원A석 5천원 ☎ 420-2781 가족뮤지컬 '차츰맨 도와줘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출 오전 10시 20분, 11시 20분 1만2천원 / ☎ 760-3455 닥종이인형극 '이불꽃'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2천원 / ☎ 505-5995	20 인천시립합창단 고3 수험생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전 10시 30분 / 전석 2천원 ☎ 420-2784 닥종이인형극 '이불꽃'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2천원 / ☎ 505-5995	21 미사 마이스키 첼로 독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8시 R석7만원, S석5만원A석 3만원 ☎ 431-8161 노래하듯이 햄릿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3시 6시 / 2만원 ☎ 1588-2341 월빙밴드 크레용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출 오후 3시 / 전석 무료 ☎ 760-3455	22 인음필하모닉 오케스 트라 Virtuoso 초청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1만2천원, 8천원 ☎ 888-0807 제5회 소극장 연극축제 11월의 만남 노래하듯이 햄릿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5시 / 2만원 ☎ 1588-2341
23	24 제9회 인천기계공고 동문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811-4422	25 김정원 리사이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5만5천원, 4만4천원, 3만3천원 ☎ 022658-3546 / 더스토프 I-Dance 2009 인천을 빛낸 차세대 무용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1만원, S석5천원 ☎ 420-2788 가을과 만나는 선율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출 오후 7시 / 5천원 / ☎ 760-3455 인디밴드 데이 에보니힐, SMILE☆Y 부개문화사랑방 / 오후 4시 전석 2천원 / ☎ 507-5996	26 인천여성문화회관 오 케스트라 제13회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 518-3827 제5회 소극장 연극축제 11월의 만남 뉴보잉보잉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전석 2만5천원 ☎ 1588-2341 인디밴드 데이 에보니힐, SMILE☆Y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4시 전석 2천원 / ☎ 505-5995	27 제5회 소극장 연극축제 11월의 만남 뉴보잉보잉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전석 2만5천원 ☎ 1588-2341 자유로운 바람을 일으키다 키네틱악그룹 '엔'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전석 2천원 / ☎ 505-5995	28 생활예술인 공동창작극 장수동 2009~1592 인천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 오후 3시 ☎ 465-6827 2009 킬투쇼-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 전석 5만5천원 ☎ 1688-6675 미추홀여성합창단 연주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출 오후 7시 30분 / 전석 무료 ☎ 760-3455	29 2009 킬투쇼-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 / 전석 5만5천원 ☎ 1688-6675 뉴보잉보잉(28일~2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4시 / 전석 2만5천원 ☎ 1588-2341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공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출 오후 1시 / 전석 무료 ☎ 760-3455

이달의展

11월 17일(화)부터 11월 22일(일)까지 신세계갤러리에서는 '격동의 한세기, 인천인물 100人'展 이 열린다. 인천의 근현대를 대표하는 항일운동사로부터 정치경제, 사회역사, 교육문화를 이끌어 온 인물을 재조명하는 전시이다. 인천 대표인물 관련 자료, 사진, 소장품 등을 비롯하여 인천의 근대 최고, 최초 관련 사진 및 자료가 전시된다.

10월30일 ~ 5일 이화백 개인전 / 신세계갤러리

11월 1일 ~ 5일 제45회전국공모인천미술대전및인천미술대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 3일 ~ 10일 중등교사 미전 / 학생교육문화회관 기온갤러리

11월 6일 ~ 12일 2009 전국고등학교생디자인공모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 6일 ~ 12일 한 일 양국간의 사진 교류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 6일 ~ 12일 '빛과 바다의 만남' 판화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 6일 ~ 9일 광궁수석회 창립기념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12일 ~ 27일 인천현대도예작가회 / 학생교육문화회관 기온갤러리

11월13일 ~ 19일 2009글로벌서각 오케스트라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13일 ~ 19일 2009 미술로 담은당신의 생애 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13일 ~ 19일 세빛모임 정기회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17일 ~ 22일 '격동의 한세기, 인천인물 100人' 전 / 신세계갤러리

11월17일 ~ 24일 제4회 원로작가 초대전 / 한중문화원

11월20일 ~ 26일 제25회 국제난정법회 서법전 국제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20일 ~ 26일 "기능을 가진 조각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25일 ~ 12월 2일 임일택 조각전 / 한중문화원

11월27일 ~ 30일 램경박영동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27일 ~ 30일 김명자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27일 ~ 30일 제10회 한국화 원목회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27일 ~ 30일 4인의 개인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2009 인천방문의 해
VISIT INCHEON 2009, KOREA

www.icaashow.org



Incheon International Autoparts & Accessories Show

2009
ICAA Show

인천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

2009.11.24(화) ~ 26(목), 3일간

송도컨벤시아



Higher Standards,
Eco Driving



전시 내용

국내·외 부품기업의 신기술/제품 전시관, 국내 완성차 메이커 전시관
연구개발성과물 전시관, 부품개발 물 및 용품 전시관

전시 품목

OEM/Aftermarket 부품 / 시스템 & 모듈 / 전장 부품 / 자동차 용품 및
악세서리류 / 부품제작설비 및 물 / 장비기기 및 공구류 / 테스트 기기 및
장비류 / 상용소프트웨어 & 텔레매틱스 / 타이어 & 물 / 신기술 & 신제품

수출상담회

- 해외 유통 바이어와의 Matchmaking상담 기회 제공
- 통역지원, 필요시 바이어의 생산공장 방문 알선

학술대회

- 2009년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 발표 논문 600편, 학술대회 참관 인원 1,500여명

부대 행사

- 대학생 자작 자동차 전시
- 자동차부품 개발 기관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성과 전시
- 참관객 참여 게임, 풍부한 커피 제공

| 주 최 | MKE 지식경제부 인천광역시 | 주 관 | SONGDO TECHNOLOGY 인천경향신문

| 후 원 | 한국자동차공학회 인천지방중소기업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협 찬 | GM DAEWOO 우리은행 | 문 의 | 전시회 사무국 032-260-0745 icaashow@step.or.kr



합격의 묘약, 수능 도시락

매섭게 추웠던 1998년 11월의 수능일. 몹시 긴장되던 그날 아침, 어머니는 아침밥과 점심도시락을 세심하게 챙기시고, 아버지는 차 안을 따뜻하게 데워 놓고 나를 고사장까지 데려다 주셨다.

부모님의 든든한 응원을 받고 일찌감치 고사실에 앉아, 마지막 공부를 하려고 노트를 펴는 순간 떠올랐다. 점심 도시락 가방이 없는 것을! 그날따라 어머니가 유난히 신경을 써서 보온 도시락, 보온물병, 간식거리까지 챙겨 준비해준 것을 그만 차에 두고 내린 것이다.

급히 교문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부모님은 안계셨다. 오후 5시가 넘어야 시험이 끝나는데 점심을 못 먹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긴장 속에 2교시 시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그때 스피커를 타고 “00여고 최민 학생, 본부실로 와서 도시락 가져가세요!” 라는 방송이 나왔다. 친구들은 ‘이 곳 까지 와서 방송을 타야겠느냐’며 농담어린 핀잔을 했다.

수능을 보는 자식 때문에 새벽부터 잠을 설쳤던 부모님은 집에 돌아가서 잠시 눈을 붙이셨다가, 출근할 때가 되서야 도시락을 발견하고 부리나케 고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도시락을 먹자 시험을 보는 긴장도 사라지고 힘도 솟았다.

다행히 수능시험 결과가 좋았고 나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해서, 이 사건을 웃으며 회자할 수 있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아마 도시락 핑계를 댔을지도 모르겠다.

최민_남동구 간석동



윤정아 파이팅!

내 나이 이제 곧 원이라는 걸 느끼게 한 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도 아니고, 눈가의 자글자글한 잔주름도 아니다.

수능을 앞둔 딸 아이를 보며 ‘

이제 내가 대학생의 부모가 되는

구나’라는 걸 실감하곤 한다. 아이는

토요일도 5시까지 학교에 있다오고, 방학도 없이 매일 도시락 싸서 학교 갔다 10시면 집에 온다. 얼굴은 항상 누렇게 떠있

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따끈따끈한 아침밥과 집에 오면 공부하느라 고생했다는 말뿐이다.

며칠 후 지원한 학교의 논술시험이 있었다. 한 시간 가량을 일찍 도착했으나 학교입구는 벌써 아이를 태우고 온 자가용들로 번잡스러웠다. 자기자식의 고통을 같이 나누려는 마음은 부모들 모두 똑같았다.

이제 딱 한달 남은 수능! 아이의 달력은 카운트다운이 30일로 적혀있고, 당일 날은 새까맣게 별표가 되어 있다.

남편은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드름이 도드라져 나오는 아이의 얼굴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 수능이라는 큰문을 통과하며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와 함께 우리가족도 함께 성숙해지리라 믿는다.

임순정_화성시 기산동

수능 앞둔 학생들 모두 힘내길

이맘때면 시험을 앞둔 아이들의 이야기가 들리곤 한다. 아들 뻔되는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이 나이에든 마음이 술렁인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직장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을 가장 먼저 가려내는 것은 대학 졸업장이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4년제이냐 2년제이냐 이런 것으로 가장 먼저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제 인생을 자신이 설계한 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입시 준비로 바쁜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따뜻한 아침은 먹었는지...’ 안쓰러운 눈빛으로 자꾸 보게 된다. 오늘 새벽 전철을 타고 피곤한 얼굴로 등교하는 한 여학생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였다. 수능을 앞둔 모든 학생들이 힘내길 바란다.

이상렬_계양구 작전동

인생의 첫 관문, 무사히 치르길

내가 수능시험을 치렀던 1996년은 총점이 200점 만점에서 400점 만점으로 바뀌고 통합교과형 문제가 출제되는 등 입시가 변화무쌍해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시험 전날까지 마무리학습에 열을 올렸지만,

난 너무 예민한 성격과 고질적인 위염으로 일찌감치 수능 3일 전에 정리를 끝내버렸다. 그리고 이를 동안, 내가 무슨 유명인사라도 되는 것처럼, 일가친척에 인사를 다니며 기대한 바를 꼭 이루겠노라고 약속했다.

드디어 시험 당일 아침, 뒤에 앉은 인상 험하게 생긴 아이가 나에게 어느 학교 출신이냐고 묻는다. 명문고 출신이라면 믿고 답안지를 슬쩍 보겠다는 심사다. 하지만 시골 00고등학교라고에 다닌다고 하자 그 학생은 이내 실망하며 조용해졌다. 다행히 난 끝까지 집중하여 평소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더구나 평소 아버지의 영향으로 신문과 TV의 시사프로그램을 즐겨본 덕에 통합교과형 문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었다.

하지만 수능 전후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지... 지금도 가끔 답안을 잘못 쓰거나 수능 당일 아침 사고가 나는 꿈을 꾼다. 하지만 꿈은 꿈일 뿐. 난 가고 싶었던 학교를 무사히 합격했고 지금은 교정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인생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수능을 치르는 모든 이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안상현_남구 학익동



긴장했던 수능시험일

매년 이맘때면 여기저기서 수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동네에서는 학원마다 현수막을 걸고, 텔레비전과 신문 에도 온통 수능이야기다. 그만큼 수능시험일은 중요한 날이다. 9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수능능력시험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나에게 수능시험은 불편하고 참기 힘든 날이었다.

나는 커닝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감독관 선생님의 말을 떠올리며, 한손으로 코를 막고 한손으로 문제를 풀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모른다. 결국 참다 참다 못해 손을 들고 선생님께 가방 속에 있는 휴지를 꺼내고 싶다고 말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때는 어린마음에 가방 속 휴지를 꺼내는게 왜 이리 어려웠던지,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김동숙_서구 가좌동



후배들 힘내요~

1992년은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해 1학년이 되던 해다. 1993년 대입까지는 학력고사로, 1994년도부터 수능능력시험으로 대학생을 선발했다.

당시 내가 대입을 준비할 때는 수능능력시험이 도입 단계에 있던 때로, 수능능력시험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수학과목을 잘해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친구들과 우스개 소리도 했다.

수능능력시험은 학력고사보다 많이 어려웠다. 객관식이 5지선다 서술형인데다,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의 예문도 길었다. 또 수리·탐구도 거의 서술식으로 출제돼 혼선을 빚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끝에 시험에 적응할 수 있었다.

이제 수능능력시험은 거의 정착된 것 같다. 또 각 대학교마다 선발기준이 다르고, 몇 해 전부터 수시제도가 도입되고, 최근에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되어 학생들이 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듯하다.

지금은 상황이 그러하지만 내 세대 학생들은 수능시험제도의 도입으로 혼란을 빚었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시험을 보는 후배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박종형_남동구 구월4동

다음달 테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책에 글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구월동 113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1월 22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 440-8306)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개관합니다

인천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해, 식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식품안전 선진화를 이루고자 '인천식품안전 정보센터'를 개관합니다.

- **위치**: 예술회관역 지하 1층 대합실
- **운영기간**: 10월 27일부터 연중 운영
- **전시내용**: 식품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 HACCP제품 및 부정·불량식품, HACCP우수사례 및 선진국 식품안전사례 등
- **프로그램 내용**: 연령별 식품안전 체험교실, 올바른 식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개인별 식습관 및 영양평가 등의 체험프로그램 및 단체교육, LCD 테마별 홍보상영 및 전단을 배부해 식품안전 정보 제공
- **문의**: 시 위생정책과 ☎ 440-2784

2009 Water Korea in incheon으로 초대합니다

‘2009 Water Korea in incheon’는 국내 최대의 상하수도 전시회로 국제 상하수도 기자재전시회, 국제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및 물 사진 전시회 등이 다채롭게 열립니다.

- **개최기간**: 11월 16일(월)~19일(목)
- **개최장소**: 송도컨벤시아
- **전시규모**: 10개국, 130개 업체, 490부스
- **주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상하수도협회
- **후원**: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국수자원공사
- **행사내용**
 - －국제상하수도 전시회
 - －상하수도 정기총회
 -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 －상하수도 기능경기대회
 - －물사진 전시회
 - －상하수도 기능경기대회
- **문의**: 상수도사업본부 ☎ 720-2124, Fax 720-2129

송도국제도시 생태체험 학습에 참여하세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도국제도시 새아침공원 내 생태교육관에서 ‘송도국제도시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어린이, 학생 가족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3월~11월 (평일) 오전 10:00~11:30, 오후 15:00~16:30

- **접수방법**: 전화접수

- **프로그램내용**

구분	프로그램	1주	2주	3주	4주	대상	교육기간	비고
11월	송도국제도시 조류탐방	○		○	○	누구나	월~금	예약/무료
	식물나라이야기(씨앗)	○	○			5~12세	월~금	예약/무료
	식물나라이야기(겨울눈)			○	○	5~12세	월~금	예약/무료
	열매목걸이 만들기	○	○	○	○	가족	토	예약/무료
	야생동물발자국만들기	○	○	○	○	가족	토	예약/무료

- **예약확인**: www.ifez.go.kr → IFEZ즐기기 → 교육안내

- **문의**: 생태교육관 ☎ 453-7975

2009 인천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 관람하세요

인천시는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판로 확대를 위해 ‘2009 인천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CAA Show2009)’를 개최하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일시**: 11월 24일(화)~26일(목), 10:00~18:00
- **장소**: 송도국제도시내 송도컨벤시아
- **주최**: 인천광역시 지식경제부
- **주관**: (재)송도테크노파크, (주)인천경향신문
- **행사내용**
 - －전시회: 국내·외 부품기업의 신기술 및 제품전시관, 국내 완성차메이커전시관, 연구개발성과물전시관, 부품개발 톨 및 옴품 전시관 등
 - －자동차부품 수출상담회: 국내·외 기업 및 바이어와의 매치메이킹, 통역지원, 필요시 생산공장 방문 지원 등
 -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분과별 세미나 등을 통한 신기술 동향제공 등
 - －부대행사: 친환경 자동차, 레이싱카, 대학생 자작자동차 전시 및 시승, 자동차부품 개발 기관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성과 전시, 해외바이어 환영 리셉션, 참관객 참여 게임, 경품추첨 등
- **문의**: 260-0773, 0745, Fax 260-0800, 0804, www.icaashow.org

‘그릇, 근대를 담다-근대산업도자기 전’으로 초대합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의 2009년 세 번째 기획전별전 ‘그릇, 근대를 담다-근대산업도자기 전’이 열립니다. 도자기 생산과 사용의 근대화, 산업화된 모습을 통해 근대도자의 감상 및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시회로 오세요.

- **전시명**: 그릇, 근대를 담다근대산업도자기
- **기간**: 11월 10일(화)~2010년 1월 31일(일)

- **장소**: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 **전시주제**: 19세기~20세기 중반 근대기 산업도자기를 새롭게 조명
- **전시유물**: 백자금채이화문접시, 백자채색인물문접시를 비롯한 일본·중국·유럽 수입자기 및 국내생산 산업자기, 발굴도자편 등 130여 점
- **자료협조**: 경기도자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민속박물관, 상명대학교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중원문화재연구소, 개인소장가 등
- **문의**: 인천시립박물관 ☎ 440-6750, 1

인천문화사랑화원축제에 초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부는 겨울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미추홀 문화화관 회원님들이 1년여 동안 활동하며 배워온 모든 실력의 결실을 펼쳐 보이는 축제 한마당을 엽니다. 와서 예술의 향취를 마음껏 느껴보세요.

- **전시한마당**
 - －일시: 11월 24일(화)~29일(일), 11:00~18:00 (일요일은 오후 2시까지)
 - －장소: 인천예총 문화회관 제12 전시실(수봉공원)
 - －내용: 공예(어린이도자기, 신기한 고무찰흙, 리본아트, 선물포장, 홈인테리어, 전통매듭, DIY, 생활양재, 서예, 테코파주, 쿼트), 미술(사진, 대생·수채화·인물화, 유화, 표현미술, 열린미술, 서예, 홈스케치, 파스텔화)
- **개막식 & 축하공연**
 - －일시: 11월 28일(토) 14:00
 - －장소: 인천예총 문화회관 소극장(수봉공원)
- **어울림 한마당**
 - －일시: 11월 28일(토)
 - －장소: 인천예총 문화회관 소극장(수봉공원)
 - －축하공연
 - 1부: 주부연극, 실버한국무용, 동화구연, 성악, 동요, 발리댄스, 클리리넷, 키즈프리발레
 - 2부: 오키리나, 어린이 재즈댄스, 도살풀이, 바이올린, 성악재능교실, 색소폰, 어린이발리댄스, 플룻, 요들, 뽕피리리발레, 성인재즈댄스
- **기념떡 증정·경품행사**
 - －일시: 11월 28일(토) 17:30
 - －장소: 인천예총 문화회관 소극장
- **문의**: 미추홀문화회관 ☎ 765-0220, 0250

공휴일에도 건강검진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생계형 검진포기자에게 건강검진 기회를 주기 위해 공휴일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작년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의정부, 안산, 시흥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금년 4월부터는 인천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공휴일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휴일 검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검진기관은 경인지역 내 35개 검진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지역공단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오전 중으로만 검진할 수 있습니다.
- 인천지역 공휴일 검진사업 참여 검진기관

연번	지사명	지사전화	검진기관명	전화번호	공휴일검진 실시내역
1	인천남부지사	870-4161~3	마음속내과의원	831-2208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2	인천남부지사	870-4161~3	이이주내과의원	817-7114	매월 첫째주 일요일
3	인천남부지사	870-4161~3	일신내과의원	813-8275	매주 일요일 (예약필수)
4	인천남부지사	870-4161~3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원	884-7132	매월 넷째주 일요일
5	인천남부지사	870-4161~3	한국병원	428-9411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6	인천계양지사	540-6163~3	중앙연합의원	542-3538	매주 일요일
7	인천서부지사	560-9163~3	서인천성모병원	566-8275	매주 일요일 (예약)
8	인천서부지사	560-9163~3	서인천현대정형외과의원	561-7575	매주 일요일 (예약)
9	인천서부지사	560-9163~3	신현메디칼의원	584-1088	매주 일요일 (예약)
10	인천서부지사	560-9163~3	연세열린내과의원	579-6090	주중 공휴일만
11	인천서부지사	560-9163~3	연세조내과의원	563-6894	매주 일요일 (예약)
12	인천서부지사	560-9163~3	연희내과의원	568-2220	매주 일요일 (예약)
13	인천남동지사	452-7161~4	삼성병원	426-5230	매주 일요일 (예약)
14	인천남동지사	452-7161~4	예스메디컬의원	467-5115	매월 첫째주 일요일(예약)
15	인천남동지사	452-7161~4	조영복내과의원	469-7580	주중 공휴일만
16	인천부평지사	509-4161~4	동수녹십자의원	525-7531	매주 일요일
17	인천부평지사	509-4161~4	부평사랑내과의원	526-0075	매주 일요일, 주중 공휴일
18	인천부평지사	509-4161~4	부평중앙병원	513-5500	(예정)
19	인천부평지사	509-4161~4	평화의원	524-6911	(예정)

- **문의**: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4922

사립박물관 11월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먹과 캔버스, 동서양의 그림이야기-인상주의 미술
박물관 시민강좌 '먹과 캔버스, 동서양의 그림이야기' 열한 번째 강좌는 '인상주의 미술'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11월 7일(토) 14:00~17:00
- 주제: 인상주의 미술
- 강사: 김현화(숙명여자대학교)
- 장소: 인천사립박물관 1층 대강당 석남홀
- 대상: 인천시민 누구나(무료공개강좌)
-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인천시민 인문학강좌의 주제는 '동아시아와 한국의 상생을 향하여'로 12월 22일까지 격주 화요일에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프로그램 내용
· 5강: <혈의누>를 통해본 세계상, 11월 10일(화) 16:00 ~ 18:00
· 6강: 20세기 동아시아의 미국관, 11월 24일(화) 16:00 ~ 18:00
- 장소: 인천사립박물관 1층 대강당 석남홀
- 대상: 인천시민 누구나(무료공개강좌)
- 참가방법: 별도의 수강신청과정 없음
- 문의: 인천사립박물관 ☎ 440-6750, 1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신청하세요

인천 중구에 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교부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지적,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욕창방지용 매트: 1~2급 지적,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탐상시계: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청각장애인 등
- 신청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 주민센터
- 신청기한: 11월 6일까지
- 문의: 인천 중구청 장애인복지팀 ☎ 760-7662

가족과 함께 책 이야기 나누어요

'책을 만난다. 친구 생각+내 생각'은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책 한 권으로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 11월에 만나는 책: <길로 길로 가다가> - 인강 그림, 전래동요

- 일시: 11월 26일(목) 오후 6시~7시
- 장소: 부평기적의도서관 공연장 어울림
- 참가대상 및 인원: 남녀노소 누구나, 선착순 200명
- 참가비: 무료
- 내용: 작가와의 만남 및 대화, 가족의 책 낭독회, 초등학교생의 작은 음악회 등
- 문의: 부평기적의도서관 ☎ 505-0612~3, www.bpml.or.kr

청소년 프로그램 참가하세요

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	대상	내용	활동일시/ 장소	접수/참가비
가을학기 교육이카데미 키즈몽땅	초등학생 1~4학년 10명	초등학생대상 키 크기 체조 및 요가활동	매주(화) 15:00~15:50 화수청소년 문화의집	상시모집 (참가비: 10,000원)
2009년 문화교실 파티세 체험	초등학생 4~6학년 40명	파티세작업교육, 파티세 체험 (케이크 만들기)	11월 28일(토) 10:00~13:00 경인제과 제빵원	10월 20일부터 선착순접수 (참가비: 4,000원)
2009년 청소년 탁구대회 중, 고등학생 탁구대회	중·고등 학생 16명	탁구대회 (단식)	11월 28일(토) 15:00~17:00 화수청소년 문화의집	10월 16일까지 전화 및 방문 접수 (참가비:무료)
청소년수련 활동인증 프로그램 제 762호 학교 가는 길	초등학생 4~6학년 20명	우리학교 주변 유익, 유해환경 지도만들기	11월 7일, 14일 화수청소년 문화의집	11월 6일까지 전화 및 방문 접수 (참가비:무료)

- 문의: 화수청소년문화의집 ☎ 762-7942, www.dreamyouth.kr

플라스틱을 바라보는 두 나라의 시선

전시 ‘플라스틱 신드롬’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소재인 ‘플라스틱’을 통해 현대 물질문명 사회를 조명해 보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한국과 필리핀의 교류전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두 나라 젊은 작가들의 각기 다른 감수성과, 다양한 해석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전시기간: 10월 10일~11월 7일
- 관람시간: 10:00~18:00, 일요일 휴관
- 장소: 아트 스페이스 플라스틱 공장_Art Space Plastic
인천 계양구 작전동 738-8번지
- 전시후원: 인천문화재단, 진영프라스틱 공장
- 조직: NEAR 당산스튜디오(www.dangsanstudio.com),
프로젝트 스페이스 필리피나스(필리핀)
- 문의: 인천문화재단 큐레이터 박소연 ☎ 010-8713-3253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 인천광역시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11월 20일(금) 1330~1720
- 장소: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
- 참가대상: 인천 지역 중소 제조업체 60개사
- 주요 내용: e-글로벌 마케팅 전략 소개, 이탈리아 시장 진출 전략 및 성공 사례, 브라질 시장 진출 전략 및 성공 사례
- 참가업체 선정: 선착순 60개사 모집
- 참가업체 신청 기한: 11월 18일(수)
- 문의: 인천상공회의소 ☎ 810-2853, Fax 810-2858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합니다

인천시여성복지관에서는 인천지역 자영업자의 경영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창업자들의 참여 바랍니다.

- 컨설팅 기간: 10월 26일~12월 31일
- 컨설팅 방법: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컨설팅' 제도 활용
- 지원 인원: 9명
- 지원 내용: 1개 업체 당 20~60만원 상당 컨설팅 비용 지원 (복합
관지원 5만원, 소상공인진흥원 지원 15~55만원)
- 지원 대상: 인천시 거주자 및 사업장이 인천에 위치한 자 중 근로
자 5인 미만의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업종전환자
(폐업 포함) 및 예비 창업자
- 컨설팅 내용: 창업타당성 진단, 성공창업 전략, 프랜차이즈·가맹
점 창업전략, 새로운 경영기법, 아이템선정 상권·입지분석, 온라인
창업 등
- 신청 기간: 10월 26일(월)~11월 4일(수) 1800까지
-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에 한함), 신분증
- 접수 방법: 방문 및 전화신청
- 문의: 인천시여성복지관 ☎ 440-6550~4

박물관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신규지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11월 1일(일)~11월 14일(토)

- 모집분야 및 인원
 - 전시유물 해설 00명
 - 체험교실 운영 00명
 - 소식지 및 간행물 편집 0명
 - 사진 및 영상기록 0명
- 모집대상 :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누구나(소식지 및 간행물 편집과 사진 및 영상기록 분야는 경력자에 한함)
- 모집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시·박물관 및 기타 문화기관) 후
 - 우편, 전화, 팩스, 방문 접수 실시
- 우편접수 : 406-05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38(옥련동 525)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과
- 문의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440-6733, Fax 440-8871

인천광역시 인터넷방송

365일 24시간 무료

사이버문화교양강좌

<http://tv.incheon.go.kr>

교육시간과 장소를 내맘대로!
인천시 홈페이지 회원이면 무료!!

건강
 오가 수직심
 벨리댄스
 관악아사지
 임신, 태교, 출산 교실

취미와 건강
 홀리선
 다과 함께 따라하기
 주얼링 클래스
 필독공예
 한문서예

컴퓨터
 엑셀
 포토샵

언어와 인테리
 내 손으로 읽는 옛 강서
 내 손으로 만드는 가루 DTF

어학
 영어
 중국어

패션과 뷰티
 패션 리포발링
 관공 - 부동산 재테크
 종가문 만드는 방법
 한방적 세안 만드는 방법

자녀교육
 어가를 위한 수족관의
 유지관리와 양묘법에 유용한 법
 창덕려 속북 과학교실

성과사랑
 마법의 책 (SEX 불라니)
 우리 부부 정말 괜찮은 걸까?
 이혼 그 후, 30년간 세월물

자테크
 재테크
 리얼
 리투아니아 최고 미인
 종가문 만드는 방법

어떤강좌가 있나요?
 10개분야 300여 강좌

강좌신청은 어디서?
 인천시 인터넷방송국(<http://tv.incheon.go.kr>) 또는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강좌듣는 방법은?
 강좌보기 클릭 → 듣고싶은 강좌명 클릭 → 수강신청 버튼 클릭 →
 나의 강의실에서 신청한 강좌보기 클릭

The Incheon Bridge



글 · David Seth Renaud
인천영어마을(www.icev.go.kr)강사

- A : Do you have any plans this weekend?
B : I am going to participate in a walking competition this weekend.
A : Is it a walking competition on the new Incheon Bridge?
B : Yes. Have you heard of it?
A : Of course. I ran the marathon on the bridge last week.
B : You did. How was it?
A : The Bridge is fabulous. You don't want to lose the chance to walk on it.
B : I bet. I hope it won't rain.

- A : 이번 주말에 뭐하세요?
B : 이번 주말에 걷기 대회에 참가해요.
A : 새로 완공된 인천대교에서 열리는 걷기 대회요?
B : 네. 알고 계세요?
A : 당연하죠. 저는 지난 주에 열린 마라톤 대회에 나갔어요.
B : 그랬군요. 어땠어요?
A : 다리가 너무 멋있었어요. 대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후회할거예요.
B : 그럴 것 같아요. 그날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The Incheon Bridge

The Incheon Bridge (also called the Incheon Long Bridge) is a bridge under construction in South Korea. At its scheduled opening in October 2009, it will be the second connection between Yeongjong Island and the mainland of Incheon. The main purpose of the bridge is to provide direct access between Songdo an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reducing travel time between them by up to one hour. In addition, it will be among the five longest bridges of its kind in the world. To commemorate this, there would be competition on the bridge on 17th. October

인천대교

인천대교는 인천에 만들어진 다리다. 2009년 10월에 완공되어 영종도와 인천을 잇는 두 번째 연결로가 되었다. 이 인천대교의 목적은 송도와 인천공항 사이의 직항로를 제공하여 여행시간을 줄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있다. 또한, 인천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17일 기념걷기대회가 열렸다.



'심볼'이 말을 걸다



사소한 발견

■ 인천세계도시축전장에서 만난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다. 처음에는 아바타 작가의 작품이 연상되기도 했다. 얼핏 보기에도 '여성전용'이라는 글씨와 함께 여성에 대한 배려가 확연하다. 우리는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르면서 화장실의 위생과 외관을 크게 개선해 왔다. 이제 화장실은 남녀 간의 생리적 차이를 인정하는 공간배치가 필요하고, 다양한 이용형태를 고려한 기능을 담아야 한다. 딸아이를 데리고 남자 화장실에 갈 수 밖에 없는 다소 난처한 상황도 이제는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글· 사진 김성배(자유기고가), 사진 : 인천세계도시축전 주행사장, 일본 요코하마 시내 등